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Ground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www.bpcf.or.kr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Contents

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4
----------	-------------------------	---

2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사업소개	6
----------	-----------------------------	---

3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세부사업 소개	8
----------	--------------------------------	---

01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10
02	부평문화예술교육 <살살>	36
03	부평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커넥티드>	40
0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	46
05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날날>	60
06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 <모으다 그리고 잇다>	90
07	부평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그래-잇>	94
08	어린이 환경 산책 예술교육프로그램 <공공숨어라>	96
09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그널B>	100

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104
----------	-----------------------------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은 인천광역시의 “제2차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과 협의회, 토론회 등 지역 내 논의를 근거로 설계한 사업으로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상황에서 지역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주체 발굴, 협력망 구축을 지원하여 기초지자체 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기초지자체 단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현황 및 수요조사 · 지역 내 주체 형성 및 협력망 구축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공유 및 확산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모델 도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프로젝트명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사업기간	2024. 4. ~ 12.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재)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사업소개

부평구문화재단은 재단설립 이후로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에 예술교육 전담팀이 조직화되고 자치구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재단은 인천문화재단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평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자원을 조사하고, 예술교육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교육가, 유관기관, 예술가 등을 만나 부평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고,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목표	지속가능한 부평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추진방향	정책체계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원조사 및 방향성 수립 네트워킹 문화예술교육의 주체 발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가치확산 생활권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한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 경험 기회 확대
주요사업	·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 부평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커넥티드> ·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날날> ·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 <모오다 그리고 있다> · 부평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그래-잇>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사업 · 11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연계 대시민행사
기대효과	자원의 발굴, 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향유확산 · 자원조사 및 수요조사, 참여적 정책과정을 통한 부평 문화 예술교육의 정책 모델 발굴 ·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공감대 형성 · 지역의 예술가들이 부평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 · 지역 환경에 맞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향유 확산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세부사업 소개

사업명 부평문화예술교육 ON the Ground

사업기간 2024. 4. ~ 12.

사업구성

(천원)

과제명	사업명	추진시기	예산규모
지역 현황 및 수요조사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4월~10월	26,400
	부평문화예술교육 <살살>	5월~8월	4,400
지역 주체 형성 및 협력망 구축	부평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커넥티드>	4월~12월	3,700
특화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실행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	1월~12월	자체예산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날날>	8월~10월	14,471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 <모으다 그리고 잇다>	10월~11월	3,272
	부평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그래-잇>	11월~12월	1,300
	어린이 환경 산책 예술교육프로그램 <공공숨어라>	5월	2,62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그널B>	11월	25,000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사업개요

추진목적	지역 자원조사 및 주체 발굴
운영기간	2024. 4. ~ 10.
운영대상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시민, 예술교육가 등
운영내용	·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운영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및 현황조사, 부평구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등 운영 방향 설계를 위한 조사 (기본 현황 분석) · 지역 활동가,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교육가 등 협력 가능한 지역의 주체 발굴 (자료 조사 및 분석, 관련 주체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현황 및 자원조사

1) 문화예술 정책 여건

- 정치·행정 :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요구 확산
 - 문재인 정부 출범('17.5월)이후 「지방자치와 분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됨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19.1월/균형발전위원회), 1단계 재정분권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추진방안('19.3월/기재부)등 일련의 계획이 발표됨
 -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를 발표함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비전과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선정
 - 높아진 지역의 자치분권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정책의 전환 필요성 대두
- 경제·산업·기술 : 성장 잠재력 둔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잠재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20년대 2.2%대→'40년대 1.5%대/OECD '17), 인구·경제력·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수도권 총생산 비율(49.5%), 취업자(50.2%), 매출액 100대 기업(78%)(통계청, '16)
 - 저성장,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규 투자의 감소, 각종 인프라 노후화·쇠퇴(국토연구원, '15)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지능화시대가 도래함
 -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영상·게임 등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증가 전망('17년 32.6조원→'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Statista,Global IndustryAnalysts('19))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 첨단기술의 수용과 더불어 인간소외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문화의 역할이 요구됨

● 사회·인구 : 지역 쇠퇴 우려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28년 인구정점 후 본격 감소 전망)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지방의 쇠퇴가 우려됨
 -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구(전체 226개 중 37%), 1,383개 읍·면·동(전체 3,463개 중 40%)이 소멸 우려('18년, 한국고용정보원)
 - 2040년 1인가구 36.4%,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4.2% 전망(통계청, 2019)
- 주 52시간 노동의 본격 도입,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 삶의 질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변화
 - 국민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상승 '16년 78.4%→'19년 81.8%, 여가시간 증가(평일 3.3→3.5시간 / 휴일 5.3→5.4시간['18년→'19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19)
 - 문화행사 관람률 대도시 39.2%, 읍면지역 21.7%('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지역의 활력 증진·일상 속 문화여가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의 역할 제고 필요
- 수요자가 개인 욕구에 기반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2)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초월한 교육을 목표로 함. 이러한 교육은 모든 사람의 예술적 향유와 문화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함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재보호법」을 기반으로 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됨. 이 구분은 교육과정의 포함 여부에 따라 나뉘며,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자유, 공정, 연대, 체감, 환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제1차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은 모든 시민의 삶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제2차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은 '모든 시민이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함
- 학교예술교육의 경우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역량에 기반한 수요맞춤형 예술교육의 필요성 부각되고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2022.12.22.)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에서 기초단위 협력 주체로 기초 지자체 및 기초 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권'('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나이·성별·장애·사회적 신분·경제적 여건·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현황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계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보완 역할 수행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의 수요와 교과 연계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장르의 다양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교과 연계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참여율과 교육 시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학령별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학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예술 분야와 프로그램을 사회문화 예술교육이 제공함으로써 학령별 교육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아트, 창작 활동,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을 부평구문화재단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교에서 경험한 기초적 예술교육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성

- 부평구 관내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애인, 시니어, 아동,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소외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들 계층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장애인과 시니어는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접근이 필요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창의놀이 중심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진로 연계 예술교육, 장애인과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음

● 일부 시설에 집중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부평구 관내에서 실시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삼산도서관과 부평아트센터 등 주요 시설에 집중됨. 반면, 소규모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와 다양성 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0개 이하의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불균형 상황이 나타남
- 삼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9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평5동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수가 10개 이하에 그치는 등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격차가 나타남. 이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운영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함. 소규모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 방식을 재구성해 모든 지역 주민들이 동등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부평구 전역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단기, 장기 프로그램 운영 등)

- 부평구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현재 대부분이 1~4회 단기 회차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여자들이 심화 학습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누리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의 방향을 참고하여 단기 프로그램의 기초 체험 제공을 넘어 장기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해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작형 프로그램,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여가형 프로그램, 장애인과 시니어를 위한 예술치유형 프로그램 등 부평구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더불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현대 사회의 이슈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또한, 매개인력과 단체를 연계하는 매칭 플랫폼을 통해 수혜시설이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

- 2024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부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수요자 맞춤 문화예술교육,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등 추진하고,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지역 연계 및 공간 특화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23년도보다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

- 특히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
- 부평구문화재단의 경우 경영목표에 따라 9개 전략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함. 2024년 예술교육팀은 9개 전략과제 중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문화 감수성 향상',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 '열린마음으로 듣는 문화재단' 5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사업 9개, 세부사업 16개를 수립함

부평구문화재단 경영목표(2023년 7월 기준)

설립 목적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비전	문화적 삶과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		
핵심 가치	문화감수성	역동성	공감성
전략 목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 및 콘텐츠 발굴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문화 주도성 확보
경영 방향	주민관점 문화로 활력있는 주민	지역관점 예술로 발전하는 지역	재단관점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
전략 과제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문화감수성 향상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주민이 주도하여 만드는 문화도시 부평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 강화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	열린 마음으로 듣는 문화재단
	창의적인 거점 문화공간 확대	지역 대표예술 브랜드 창출 지원	신뢰기반 공공경영 가치 확보

- 2024년 예술교육팀 예산은 438,910천 원(약4.4억 원)으로 2023년 407,516천원(약 4억 원) 보다 약 3천만 원 증액됨
- 2024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예술놀이 공모사업(지역밀착형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2개 사업 추진
- 반면, '수요자 맞춤 문화예술교육'에서 '유아 문화예술교육', '일상문화예술교육'과 '지역밀착형문화예술교육' 중 '어린이창작교육', 지역미술활성화를 위한 전사업 운영 중 '전시장 운영'은 예산이 2023년 대비 감액됨

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 2024년 사업 추진계획 현황

전략과제	추진사업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유형	전년 대비
					증감액 (단위: 천원)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문화 감수성 향상	지역문화예술 교육특성화	부평특성화 문화예술교육	35,450	계속	2,730
	수요자 맞춤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4,710	계속	△13,100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68,680	계속	17,920
		일상문화예술교육	12,840	계속	△27,640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예술놀이 공모사업	12,400	신규	12,400
		어린이창작교육	13,020	계속	△5,480
		일상창작	12,380	계속	5,480
	독창적 전시기획 운영	특별기획전시	36,300	계속	0
		체험형 기획전시	80,000	계속	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000	계속	5,000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 강화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15,000	신규	15,000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미술품유통시장 확대사업	18,000	계속	2,000
		지역창작지형확대 공모사업	34,400	계속	9,000
		전시장 운영	20,780	계속	△11,420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	지역예술 특성화를 위한 전시사업 운영	14,000	계속	3,000
열린 마음으로 듣는 문화재단	문화가치확산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40,950	계속	16,504
총계(전략과제 5개 - 추진사업 9개 - 세부사업 16개)			397,960		31,394

부평구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¹⁾

조사명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결과
목적	부평구 거주 및 생활권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및 생활권인(초등학생 이상) 400명 이상 (※응답 408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구글), https://forms.gle/XTuxmf1fv1EjwV5Q9
조사기간	1차 2024. 9. 9.(월) ~ 9. 22(일) [14일 간] → 조사 기간 연장 : 9. 23.(월) ~ 10. 22.(화)
설문내용	· 응답자 특성(거주지, 성별, 연령, 직업, 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 여부) ·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만족도(8개 문항) ·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6개 문항)

설문조사 참여 안내 포스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설문조사 홍보 포스터〉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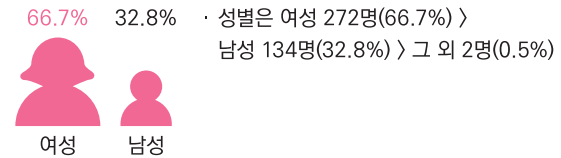
1) 본 연구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함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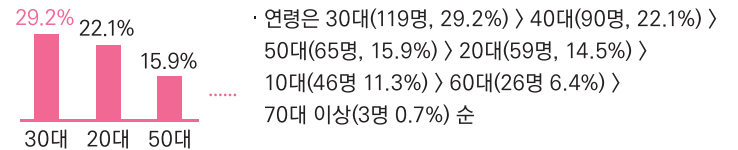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

● 응답자 특성 (응답자: 총 4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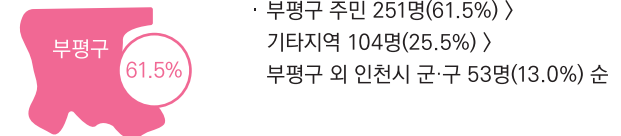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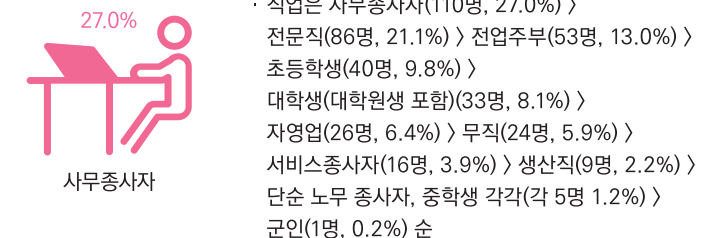
○ 연령



○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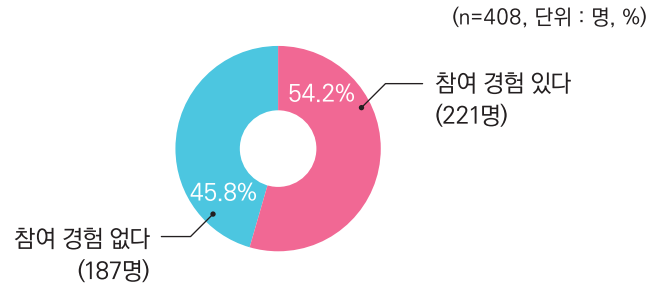


○ 직업



● 문화예술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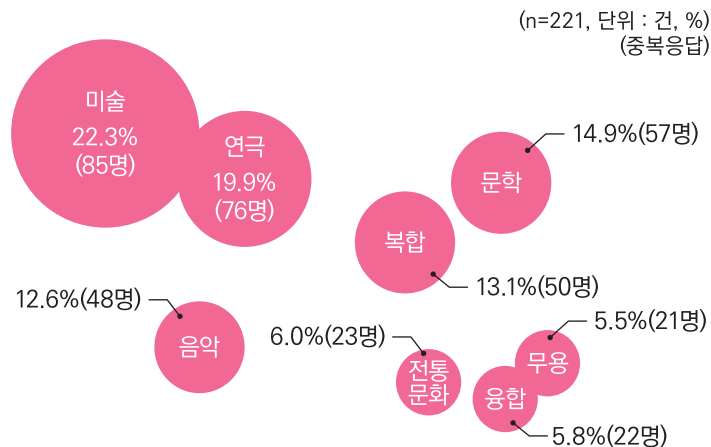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45.8%)보다 높게 나타남



2)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만족도 결과(유경험 대상)경험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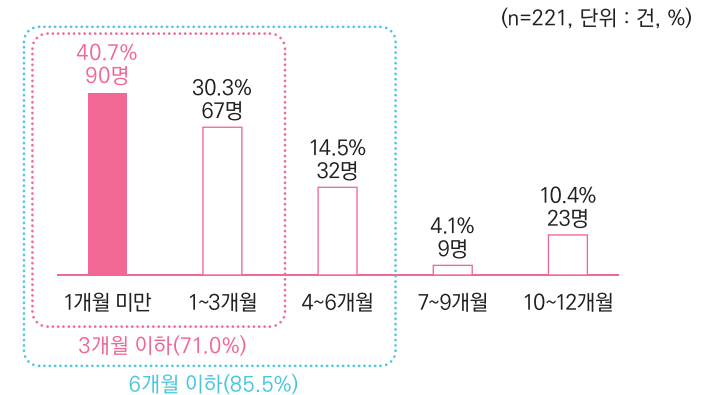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1명 대상으로,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장르)를 물어본 결과, 미술(22.3%) > 연극(19.9%) > 문학(14.9%) > 복합(13.1%) > 음악(12.6%) > 전통문화(6.0%) > 융합(5.8%) > 무용(5.5%) 순



● 문화예술교육의 평균 참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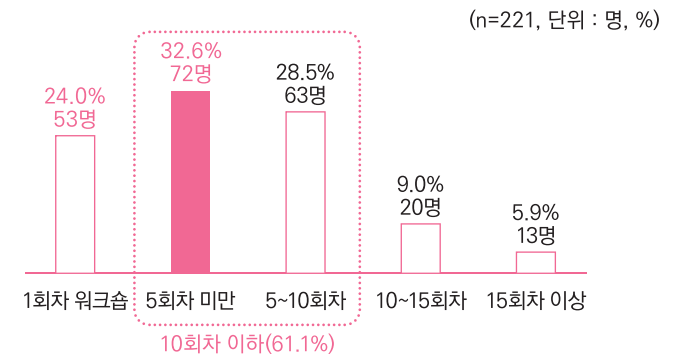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의 평균 참여 기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 미만(40.7%) > 1~3개월(30.3%) > 4~6개월(14.5%) > 10~12개월(10.4%) > 7~9개월(4.1%) 순

-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평균 참여 기간은 3개월 이하는 전체의 71.0%, 6개월 이하는 전체의 85.5%로, 단기간으로 운영되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교육 회차 구성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회차를 물어본 결과, 5회차 미만(32.6%) > 5회차~10회차(28.5%) > 1회차 워크숍(24.0%) > 10회차~15회차(9.0%) > 15회차 이상(5.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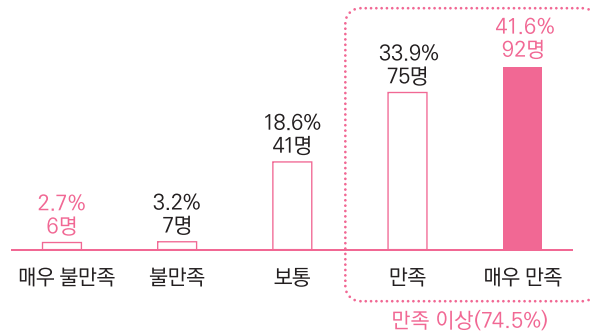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만족(41.6%)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만족(33.9%), 보통(18.6%), 불만족(3.2%), 매우 불만족(2.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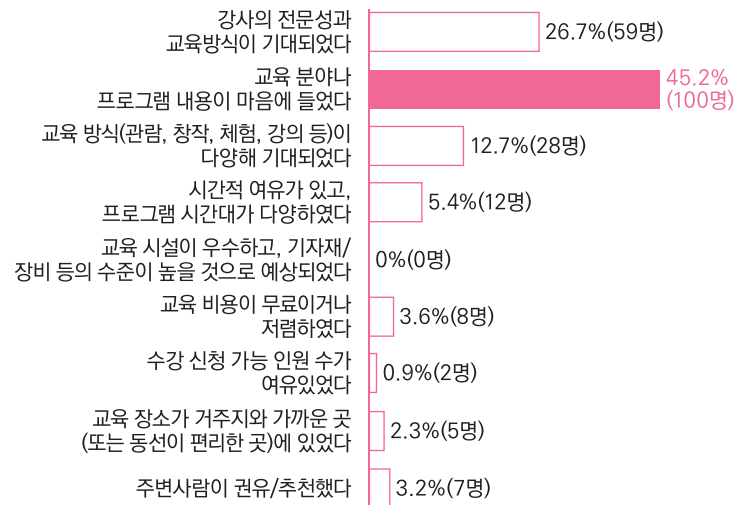
(n=221, 단위 : 명, %)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유 1순위

- 교육 분야나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45.2%) >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방식이 기대되었다(26.7%) > 교육 방식(관람, 창작, 체험, 강의 등)이 다양해 기대되었다(18.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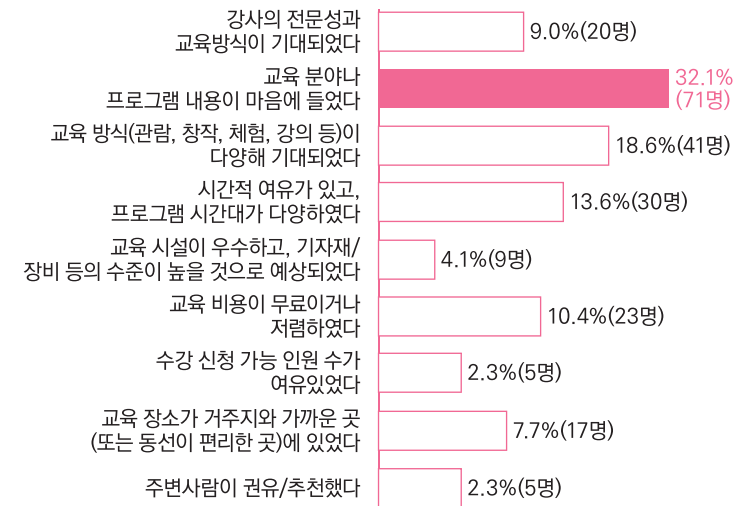
(n=221, 단위 : 명, %)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이유 2순위

- 교육 분야나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32.1%) > 교육 방식(관람, 창작, 체험, 강의 등)이 다양해 기대되었다(18.6%) > 시간적 여유가 있고 프로그램 시간대가 다양했었다(13.6%) > 교육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했다(10.4%) > 교육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또는 동선이 편리한 곳)에 있었다(7.7%) 순

(n=22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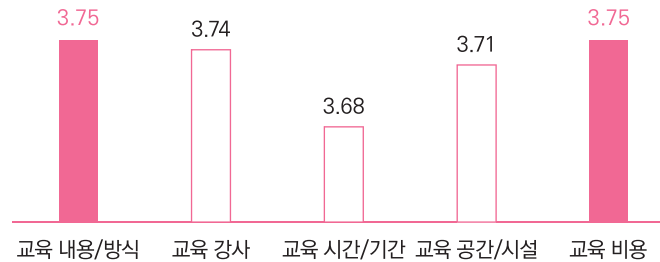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의 항목별 만족도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항목별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교육 내용/방식과 교육 비용이 각각 3.75점 > 교육 강사(3.74) > 교육 공간/시설(3.71) > 교육 시간/기간(3.68) 순

(n=221,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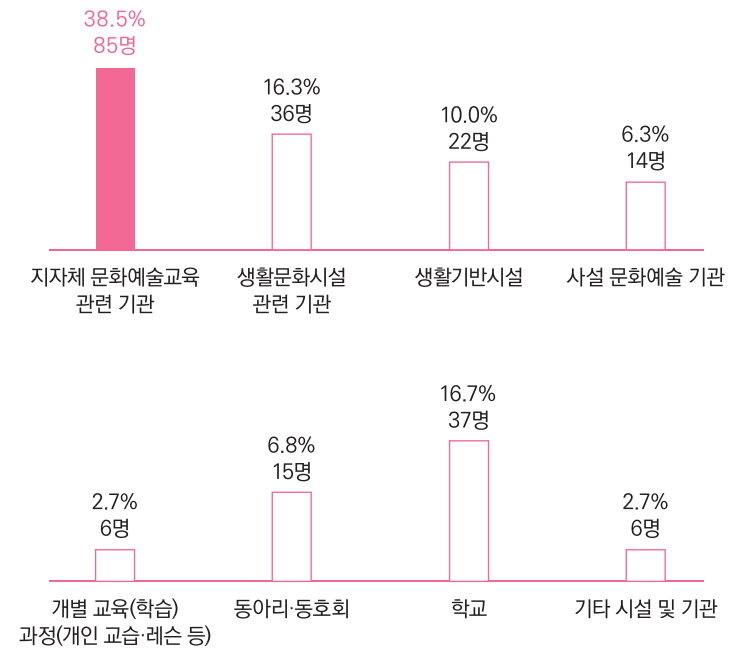
항목	전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교육 내용/방식 (체험, 관람, 강의 등)	221	16	9	45	96	55	3.75
교육 강사	221	18	9	42	95	57	3.74
교육 시간/기간	221	14	8	59	94	46	3.68
교육 공간/시설	221	17	8	50	92	54	3.71
교육 비용	221	19	7	48	83	64	3.75
	100.0	7.2	4.1	20.4	43.4	24.9	
	100.0	8.1	4.1	19.0	43.0	25.8	
	100.0	6.3	3.6	26.7	42.5	20.8	
	100.0	7.7	3.6	22.6	41.6	24.4	
	100.0	8.6	3.2	21.7	37.6	29.0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주요 장소 또는 기관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장소 또는 기관을 물어본 결과,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38.5%) > 학교(16.7%) > 생활문화시설(16.3%) > 생활기반시설(10.0%) > 동아리·동호회(6.8%) > 사설 문화예술 기관(6.3%) > 개별 교육/과정, 기타 시설 및 기관(각각 2.7%) 순

(n=22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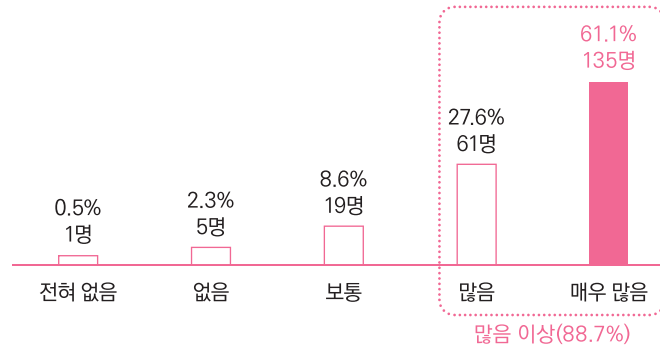


3)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유경험 대상)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많음(61.1%) > 많음(27.6%) > 보통(8.6%) > 없음(2.3%) > 전혀 없음(0.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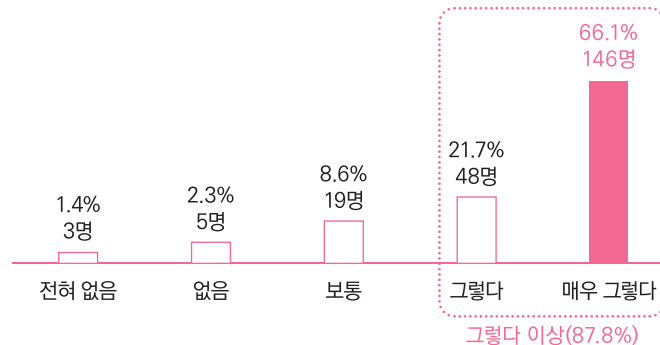
(n=221, 단위 : 명, %)



● 문화예술교육에 재참여 의향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66.1%) > 그렇다(21.7%) > 보통(8.6%) > 없음(2.3%) > 전혀 없음(1.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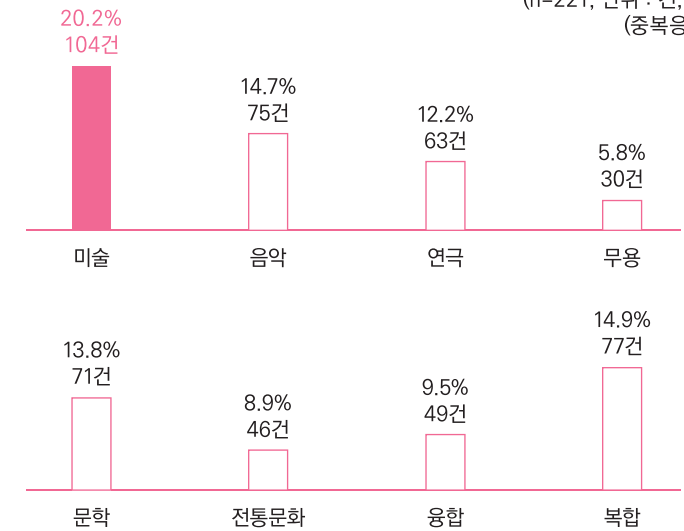
(n=221, 단위 : 명, %)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선호 분야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술(20.2%) > 복합(14.9%) > 음악(14.7%) > 문학(13.8%) > 연극(12.2%) > 융합(9.5%) > 전통문화(8.9%) > 무용(5.8%) 순

(n=221, 단위 : 건,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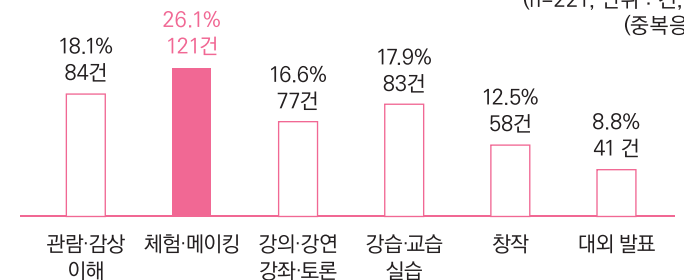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

-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물어본 결과 체험·메이킹(26.1%) >

관람·감상·이해(18.1%) > 강습·교습·실습(1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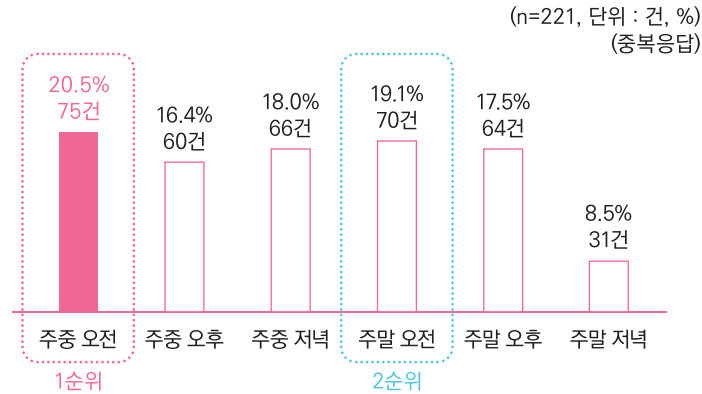
강의·강연·강좌·토론(16.6%) > 창작(12.5%) > 대외 발표(8.8%) 순

(n=221, 단위 : 건, %)
(중복응답)



● 가장 선호하는 교육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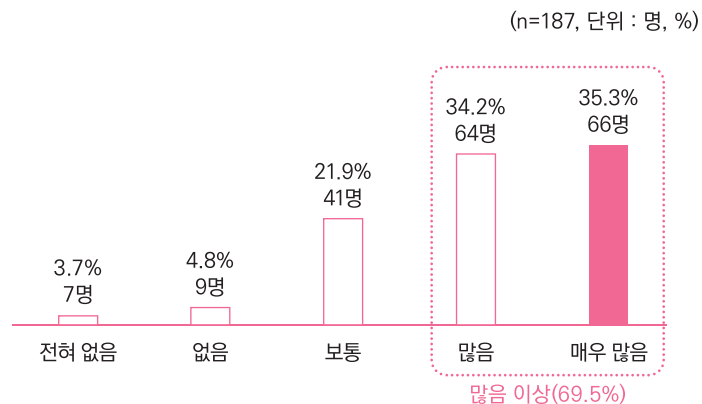
- 가장 선호하는 교육 시간대를 물어본 결과 주중 오전(20.5%) > 주말 오전(19.1%) > 주중 저녁(18.0%) > 주말 오후(17.5%) > 주중 오후(16.4%) > 주말 저녁(8.5%) 순



4)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미경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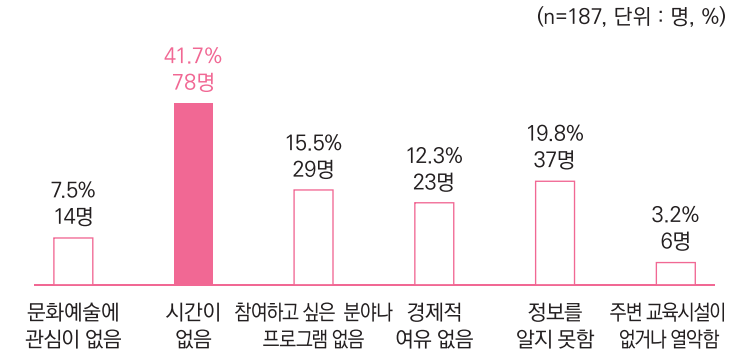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 187명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많음(35.3%) > 많음(34.2%) > 보통(21.9%) > 없음(4.8%) > 전혀 없음(3.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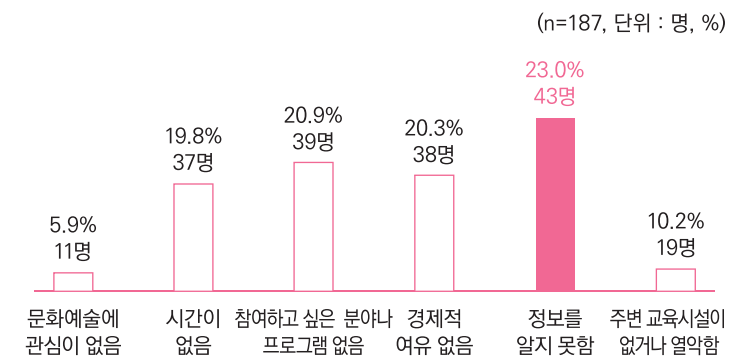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응답결과 시간이 없음(41.7%) > 정보를 알지 못함(19.8%) > 참여하고 싶은 분야나 프로그램 없음(15.5%) > 경제적 여유 없음(12.3%) 순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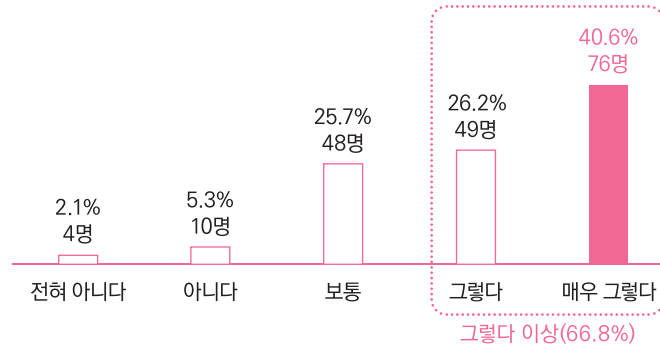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2순위는 응답결과 정보를 알지 못함(23.0%) > 참여하고 싶은 분야나 프로그램 없음(20.9%) > 경제적 여유 없음(20.3%) > 시간이 없음(19.8%) 순



●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40.6%) > 그렇다(26.2%) > 보통(25.7%) > 아니다(5.3%), > 전혀 아니다(2.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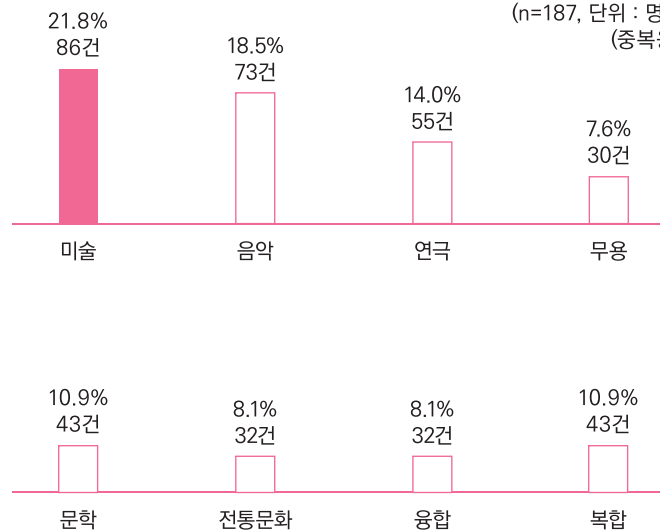
(n=187, 단위 : 명, %)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선호 분야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술(21.8%) > 음악(18.5%) > 연극(14.0%) > 문학, 복합(각각 10.9%) > 전통문화, 융합(각각 8.1%) > 무용(7.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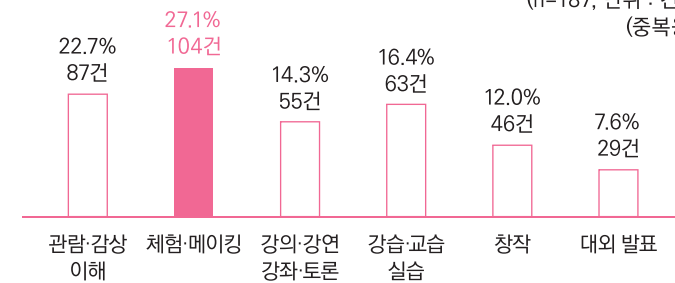
(n=187, 단위 : 명, %)
(중복응답)



●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

-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물어본 결과 체험·메이킹(27.1%) > 관람·감상·이해(22.7%) > 강습·교습·실습(16.4%) > 강의·강연·강좌·토론(14.3%) > 창작(12.0%) > 대외 발표(7.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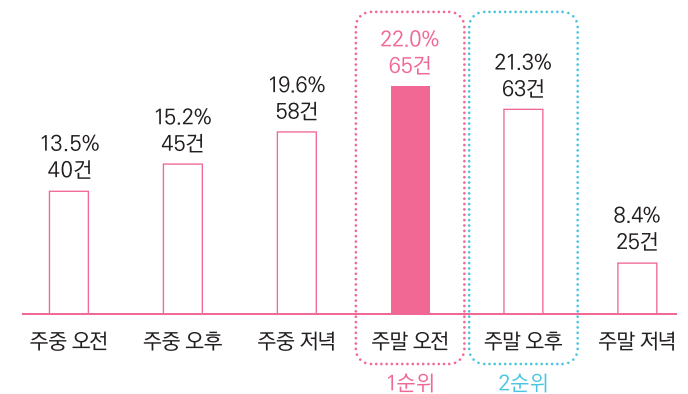
(n=187, 단위 : 건, %)
(중복응답)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가장 선호하는 교육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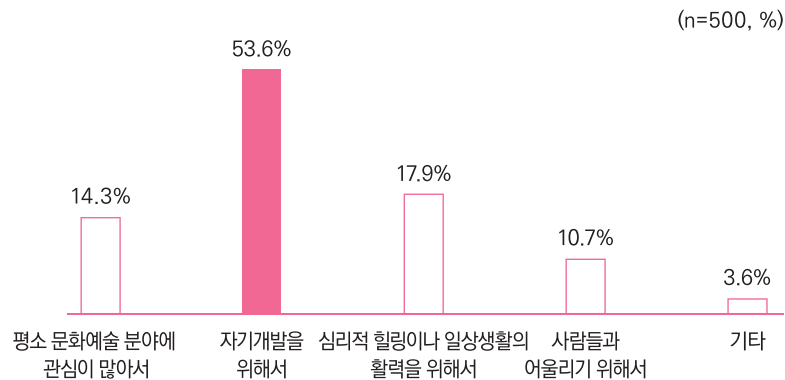
- 가장 선호하는 교육 시간대를 물어본 결과 주말 오전(22.0%) > 주말 오후(21.3%) > 주중 저녁(19.6%) > 주중 오후(15.2%) > 주중 오전(13.5%) > 주말 저녁(8.4%) 순

(n=187, 단위 : 건,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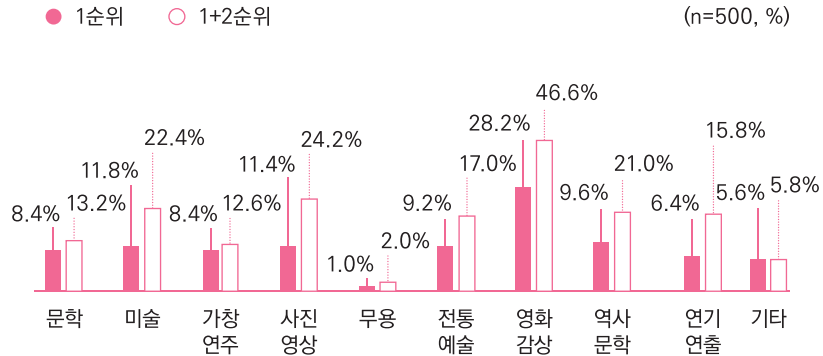
3. 소결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4.2%에 해당하는 221명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했기 때문에 이미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수 있으므로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왜냐하면 기존의 설문조사에서 부평구민의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은 4.6%~5.6% 정도이기 때문임
 -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연구」(부평구문화재단, 2021)에서 최근 1년 기준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5.6%, 없다는 94.4%로 조사됨
 - 「2020 인천 문화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인천문화재단, 2020)에서 인천시민 중 최근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6.3%로 나타났으며, 부평구의 경우 응답자(130명)의 4.6%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부평 관내 문화예술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1점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유로는 '교육 분야나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듭(45.2%)'과 '교육 방식이 다양해 기대됨(18.6%)'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연구」(부평구문화재단, 2021)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다음으로는 심리적 힐링이나 일상생활의 활력을 위해서(17.9%),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14.3%),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1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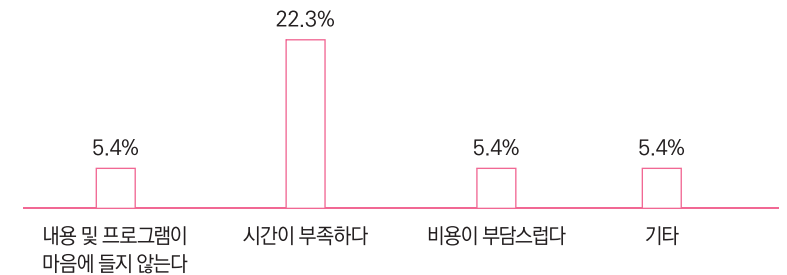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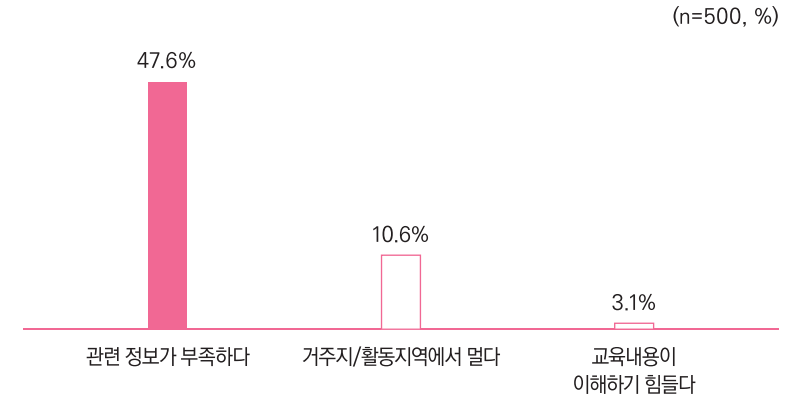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2021),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185쪽.

- 교육 기간은 단기 교육(3개월 미만)에 대한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71%), 10회차 이하 교육(28.5%)과 1회차 워크숍(24.0%)에도 참여도가 높음
 -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회차를 물어본 결과, 5회차 미만(32.6%)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5회차~10회차(28.5%), 1회차 워크숍(24.0%), 10회차~15회차(9.0%), 15회차 이상(5.9%) 순
- 교육 참여는 주로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문화재단(문화회관), 문화원 등)'(38.5%)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와 생활문화 기반 시설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짐
 - 다음으로 학교(16.7%) > 생활문화시설(16.3%) > 생활기반시설(10.0%) > 동아리·동호회(6.8%) > 사설 문화예술 기관(6.3%) > 개별 교육/과정, 기타 시설 및 기관 (각각 2.7%) 순
 - 「2020 인천 문화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인천문화재단, 2020)에서 부평구민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방식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 부설기관(46.6%) > 평생학습관(11.5%) > 사설단체부설문화센터·사설학원/강습소·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각 10.8%) > 문화재단 등 비영리 단체(6.9%) > 동호인 모임(3.1%) > 개인레슨/아는사람(1.5%) 순
- 참여 경험 분야 중 '미술'이 가장 많으며, 유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선호하는 분야 역시 '미술'로 나타남
 - 유경험자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선호하는 분야, 미술(20.2%) > 복합(14.9%) > 음악(14.7%) > 문학(13.8%) > 연극(12.2%) > 융합(9.5%) > 전통문화(8.9%) > 무용(5.8%) 순
 - 미경험자 :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선호하는 분야, 미술(21.8%) > 음악(18.5%) > 연극(14.0%) > 문학, 복합(각각 10.9%) > 전통문화, 융합(각각 8.1%) > 무용(7.6%) 순
 -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부평구문화재단, 2021)에서 향후 이수하길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물어본 결과, 영화, 영화감상(46.6%) >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24.2%) > 미술(전시관람, 화화, 공예 등)(22.4%) > 역사문화(이론, 답사 등)(21.0%) > 전통예술(17.0%) > 연기 연출(뮤지컬, 연극 등)(15.8%) > 문학(글쓰기, 독서회 등)(13.2%) > 가창, 연주(전통 악기, 서양악기 등)(12.6%) > 무용(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2.0%) 순
 - 「2020 인천 문화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인천문화재단, 2020)에서 부평구민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살펴본 결과, 악기(30.0%) > 춤, 무용(21.5%) > 영화(17.7%) > 미술(14.6%) > 연극/뮤지컬(10.0%) > 독서토론/문예창작(3.1%) > 합창(2.3%) 순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2021),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190쪽.

-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주중 오전과 주말 오전을 선호하는 반면, 미경험자는 주말 오전과 주말 오후를 선호함
- 문화예술교육 방식은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체험/메이킹'을 선호하며, '관람/감상/이해'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유경자와 미경험자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유경자 : 매우 많음(61.1%) > 많음(27.6%) > 보통(8.6%) > 없음(2.3%) > 전혀 없음(0.5) 순
 - 미경험자 : 매우 많음(35.3%) > 많음(34.2%) > 보통(21.9%) > 없음(4.8%) > 전혀 없음(3.7%) 순
- 문화예술교육 미경험자에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시간이 없음(41.7%)** > 정보를 알지 못함(19.8%) > 참여하고 싶은 분야나 프로그램 없음(15.5%) > 경제적 여유 없음(12.3%) 순으로 조사됨. 2순위 응답결과에서는 **정보를 알지 못함(23.0%)** > 참여하고 싶은 분야나 프로그램 없음(20.9%) > 경제적 여유 없음(20.3%) > 시간이 없음(19.8%) 순으로 나타남
 -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부평구문화재단, 2021)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47.6%) > 시간이 부족하다(22.3%), 거주지/활동지역에서 멀다(10.6%) > 내용(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용이 부담스럽다(각각 5.4%) > 교육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3.1%) 순으로 응답함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2021),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187쪽.

- 2021년도에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시행한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는 예술교육팀(2022년)이 재단 내 조직으로 운영되기 전에 실시됨.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동호회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부평구민의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에서 부평구민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연구와 함께 별도 분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부평문화예술교육 <살살>

사업개요

운영기간	2024. 5. ~ 8.
운영장소	부평전역
예술교육가	사미숙, 이현수, 김새롬, 심재연, 김진주, 조다애, 정소은
사업내용	· 부평 4권역별 지역현황, 마을자원조사, 주민 인터뷰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 권역별 주제설정에 따른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의견 수렴

부평구 4개 권역별 지역특성 분석 및 키워드 도출, 제언

1. 부평구 생활권역별 지역 특성 분석

- 1권역 (십정1동, 십정2동, 부평3동)
 - 4개 권역 중 면적이 가장 작고 인구 구성비가 낮고 주로 고령인구와 저소득층이 많음.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등의 주요시설이 있지만 남동구 인접 지역(십정동)으로 갈수록 문화공간의 분포도가 떨어져, 시설이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
- 2권역 (부평1동, 부평2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민간 문화공간(극장, 라이브 클럽 등)이 많이 있는 편.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부평역에 ‘미얀마 거리’ 등이 있어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정책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 3권역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 인구수는 가장 많으나 문화공간은 가장 적음. 청천동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 산업단지와 공단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에서 부족한 공공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단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4권역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부평4동, 부평5동)
 - 인구 밀도가 높음. 굴포천이 있어 생태환경,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민간 문화공간이 많이 있고 부천시와 인접해 다양한 주민과 예술인들의 이동과 교류가 있음.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시설 및 예술인들이 모인 ‘평리단길’, ‘신트리 공원’ 등 자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2021 부평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연구

현재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중점 운영 방향 설계 및 실행을 위한 2024년 기준 최신 발간 자료 검토 필요

2. 권역별 지역 특성 및 지역 주체(참여&실행) 관련 키워드

- 1권역 | 고령인구, 문화공간 및 시설 필요, 프로그램 확충
- 2권역 | 민간 문화공간 다수, 외국인, 문화 체험 경험이 적은 어린이
- 3권역 | 문화공간 적음, 산업단지와 공단, 공공 문화시설 필요
- 4권역 | 굴포천, 생태, 공원, 민간 문화공간, 예술인 및 공간 자원 연계

3. 문화예술교육 중점 운영 방향 설계 및 생활권 향유를 위한 제안

- 1권역
 - 참여 주체 : 고령층
 - 지역 : 하하골마을(주민협의회)
 - 지역 주민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주체 (예술가 또는 예술교육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실행
 - 예) '나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 '전통 악기 연주 및 노래 기반 놀이'
- 2권역
 - 부평1동, 부평6동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변화한 편
부개1동, 일신동은 '마분리공동체'의 활동으로 최근 마을 활성화 및 문화 예술교육 활동이 자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
부개2동은 4권역과 인접해 있어 문화적 체험 및 활동이 수월한 편
부평2동(동수역 인근)은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공간 및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들의 문화적 경험이 적은 편(지역 기반 활동 예술가 의견)
 - 참여 주체 : 어린이
 - 지역 : 부평2동
 - 지역 주민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주체 (예술가 또는 예술교육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실행
 - 예) 부평2동에 자리한 공방을 거점으로 '미술(공예)+움직임', '미술+국악'등의 복합장르 프로그램

● 3권역

- 산업단지와 공단의 경우 특정 회사(기업)와 매칭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 문화공간 및 시설이 적은 지역으로 외부 공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것을 제안
- 예) 천마산 둘레길을 활용한 가족참여 예술놀이 또는 생태산책 프로그램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동네 공원 또는 놀이터를 활용
최근 지역의 변화가 큰 곳으로 동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연결하며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록(사진, 글) 활동

● 4권역

- 참여 주체 : 성인 (이유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지역)
 - 굴포천 생태를 소재로 하거나 활용하는 생태 기반 예술 창작 프로그램 인근 민간 문화공간 활용, 해당 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예술(교육)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실행

부평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커넥티드>

사업개요

운영기간	2024. 10. ~ 12.
운영대상	유관기관, 전문가그룹, 북부교육지원청, 교사, 예술단체, 예술교육가 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해 관계자
운영내용	· 지역분권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및 기초단위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중요도 상승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해 논의 · 각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의 연계를 위한 간담회 운영

구성원

학교문화예술교육 협의회 참석현황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 김수희 장학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 이동철 장학사	문화예술교육 담당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정영진 본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우사라 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정혜림 팀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승용 산학협력교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문수성 연구원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협의회 참석현황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김초희 팀장	장애
부평구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권춘덕 회장	지역아동
부평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명선 센터장	학교밖청소년
다올빛 이주민 지원센터 김은미 센터장	다문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정영진 본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우사라 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정혜림 팀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승용 산학협력교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문수성 연구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협의회 참석현황

부평구노인복지관 교육정책팀 전경은 팀장	노인
부평구축제위원회 이경옥 사무국장	축제
기획자, 예술강사 한송희	예술교육랩, 기초단위
예술강사 이현수	어린이연극학교, 기초단위
극단 지구별여행자 대표 사미숙	기초단위, 신중년
지역예술가, 예술강사 김푸르나	꿈다락
온리공방 장예선	예술교육랩
나우이스트 김옥동	예술교육랩
나우이스트 박현인	예술교육랩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정영진 본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우사라 팀장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김예인 팀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승용 산학협력교수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문수성 연구원	

운영과정

● 종합의견

○ 부평구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예술강사)

행정 지원

강사들은 부평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여준 점을 높이 평가함

유연성과 배려

재단은 공모사업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며,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네트워킹과 소통

재단은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다양한 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부평구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기관)

행정 지원

부평문화재단의 지원과 협의 과정이 프로그램 진행에 유익했음

언어 사용과 접근 태도

부평구는 부드러운 언어로 다가가며 소통을 강화하는 태도로 열린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접근

다양한 시도와 차별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협의와 강사 배치

부평문화재단의 협의와 네트워킹을 통한 강사 배치로 전문 강사들이 대상자 파악 및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해왔음

○ 예술강사로서 고민점

인력 부족

행정 및 지원 인력이 부족. 방안으로 보조 강사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필요

참여자 발굴

기존 참여자 외에도, 문화예술 경험이 적은 시민이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제기됨

예산 제약

장기 프로그램이나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음

공모 절차

유연한 협력이 어렵고, 공모 절차의 한계로 인해 특정 예술가나 단체와의 협업이 제한적이라는 점 지적함

○ 향후 협력방안 등 제안

중장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수별 운영 등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효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행정 개선

강사들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 행정 인력을 보강하거나 보조 강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



학교문화예술교육 협의회 주요의견

- 정영진**
- 부평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커넥티드'를 기획하고 포럼을 준비 중임
 -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협력할 가능성 확인함
 - 부평아트센터 공연장을 학생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 중임
 - 학교와의 협력 공연 기획과 예산 부담 필요함
 - 캠프마켓 활용 사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협력 방안 모색 중임
- 전승용**
- 부평 지역 문화예술교육 수요 조사 결과, 주중 오전 프로그램 선호도 높음
 - 부평구 학교 예술강사 배치 현황 분석하며 분야별 불균형 문제 지적함
 - 캠프마켓 활용에 대한 협력 필요성 강조함
 - 재단과 교육청의 중장기 협력 방안 논의
- 김수희**
-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 유지 어려워 예산 확보 시급함
 - 캠프마켓을 인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지속 협력 필요함
 - 초등학교 영화예술교육 성과 높아 다른 분야로 확대 필요함
 -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 후 대중예술중 설립과 관련하여 복합예술공간으로 활용 계획임
- 이동철**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재정난 심각해 더 나은 협력 방안 필요함
 - 초등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관련 설문조사 결과,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 확인됨
 - 국악 분야 강사 편중 및 질적 편차 문제 해결 필요함
 - 체험학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평아트센터 공연장 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우사라**
-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확장 필요함
 - 예술강사와 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함
 - 예산 한계 속에서도 더 많은 학생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방안 고민 중임
 - 핀란드 '아난달로', 성남 '꿈터' 사례 참고해 부평을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만들고자 함
- 정혜림**
-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성과 공유하며 학생 참여형 연극 워크숍 사례 소개
 - 과목별 연극 교육의 절차적 어려움 해결 방안 고민 중임
 - 모든 학생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함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협의회 주요의견

- 김초희**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어려움이 있음
 - 강사진의 전문성 및 이해 부족 문제로 많은 협력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미술과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어려움을 지적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자기 표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재단과의 원활한 협력 기대
- 권춘덕**
- 개별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참여 희망자들만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뮤지컬 공연의 성과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부평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내면 교육의 중요성 공감함
 - 지역사회센터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접근 필요,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희망함
- 이명선**
- 미술 수업의 참여도 문제와 장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도서관 연계 사업과 영화 평론 동아리를 운영, 프로그램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함
 -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1을 채우는 곳 234'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힘
- 김은미**
-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부족에 대한 아쉬움 표함
 - 풍물단 창설 희망하나 예산 부족 문제 있음
 - 이주민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필요성 강조함
 - 재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함
- 전승용**
- 부평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와 연구, 포럼이 함께 진행될 예정임
 - 최근 부평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설문을 진행, 공공기관, 학교, 생활기반시설 순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설문 조사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희망자'들은 시간과 경제적 이유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야별 선호도는 미술, 음악, 연극 순으로 높게 나타남. 주말 오전 체험과 메이킹 수업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지적함
- 정영진**
- 부평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문화도시로 선정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논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번 회의가 소통의 출발점임을 강조, 협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람
- 우사라**
- 부평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애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가 협업을 통해 중장기 사업을 계획 중임
 - 인천대 출신 TA와의 협업 공연도 진행되었음
 - 과거의 테크닉 중심 교육과 달리, 현재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술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

사업개요

사업명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술교육랩>
사업기간	2024. 1. ~ 12.
사업대상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그룹
지원규모	총 지원금 20,000천원 / 단체당 5,000천원 내외 지원
추진방향	부평 지역의 특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시범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정단체	푸꾸플레이놀이연구소, 둥글놀이, 희울, 땀짓클럽
사업내용	· 부평만의 특성이 담겨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지원 ·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부평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평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

2024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 시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찬란한 우리를 찾아서

교육기간
2024.08.17.~09.21.
매주 토요일 10:00~12:00 총 6회

교육대상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청소년 10명

모음집 K-daughter들의 땀짓

교육기간
2024.09.24.~10.29.
매주 화요일 19:00~21:00 총 6회

교육대상
성인(K장녀 또는 K차녀)
8명

모음집

접수기간
2024.08.19.(월)부터
부평문화재단 누리집 및
땀짓클럽 인스타그램
@ddanzit_club 선착순 접수

하늘마을 놀이 탐험대

교육기간
2024.09.07.~09.28.
매주 토요일 10:00~13:00 총 4회

교육대상
초등학교 1~3학년 10명

하늘마을 놀이 탐험대

교육기간
2024.09.04.~09.25.
매주 수요일 16:00~18:00 총 3회

교육대상
초등학교 1~6학년 8명

타임캡슐 캔버스

교육기간
2024.08.12.(월)부터
매주 수요일 16:00~18:00 총 3회

교육대상
초등학교 1~6학년 8명

둥글놀이

접수기간
2024.08.12.(월)부터
부평문화재단 누리집 및
둥글놀이 인스타그램
@art__ment 선착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예술교육랩 교육내용QR

● 푸푸플레이놀이연구소(권동우)

프로그램명 항굴마을 놀이 탐험대

교육대상 초등 1~3학년 10명

교육일시 2024. 9. 7. ~ 9. 28. (4회)

교육분야 복합(설화(인문학+이야기)+연극(놀이)+만들기(미술))

교육강사 권동우(주), 이미보(주), 최은별(보), 김선화(보)

● 교육주제

항굴마을 놀이탐험대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주체적으로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 협동심, 예술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며, 부평구의 설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 추진결과

부평 설화를 바탕으로 협동심과 지혜를 모색하는 놀이지도를 만들어보는 초등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4회 시범프로그램 운영



● 1차시

○ 마음 열기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 마을 이야기를 교육연극으로 만나요.

주강사 | 권동우, 이미보 **보조강사** | 최은별

교자재 | 크레용, 색연필, 도화지, 연극소품, 큰종이마커

항굴마을 놀이탐험대 (10분)

수업 및 강사진 소개 (OT)

오감을 깨우는 미적체험 (40분)

라포형성 감정놀이 / 10분(휴)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마을 (50분)

스토리텔러 소개 / 10분(휴)

* 항굴마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재미난 연극놀이를 통해 표현해 본다 (이야기 뼈대, 릴레이 이야기 구축)

항굴마을 놀이탐험대 구호 만들기 (40분)

* 놀이탐험대 지혜를 담아 외치기

간식전달 및 참여자(부모님)오늘의 활동내용 공지 및 마무리 (20분)

● 2차시

○ 항굴마을 이야기 구성 및 놀이도구 제작 (사회성, 협동, 창의력)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놀이와 관련한 창의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시간

주강사 | 권동우, 이미보 **보조강사** | 최은별, 김선화

교자재 | 스토리보드용 큰종이, 컬러마커, 연필, 스티커, 종이, 클레이, 가위, 풀, 테이프 외

놀이탐험대 인사 및 라포형성 (50분)

놀이미션 전달 및 활동 / 10분(휴)

항굴마을 놀이탐험대 이야기 구조 (50분)

이야기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각자의 이야기 속 놀이도구를 발견 → 연결

스토리보드 만들기

이야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
각자의 이야기를 스토리보드로 구성 / 10분(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놀이 도구 구상 및 만들어보기 (50분)간식전달 및 참여자(부모님)오늘의 활동내용 공지 및 마무리 (10분)

● 3차시

- 우리가 만들어낸 놀이도구 제작 및 이야기 발전 → 새로운 놀이도구의 연결
(사회성, 협동, 창의력)

주강사 | 권동우, 이미보 보조강사 | 최은별, 김선화

교자재 | 컬러마커, 색연필, 스티커, 가위, 풀, 테이프, 공예도구, 놀이도구 재료들

놀이탐험대 인사 및 라포형성 (50분)

인사 및 라포 형성, 항굴마을 놀이미션 전달 및 활동 / 10분(휴)

이야기를 발전 시키면서 → 새로운 놀이도구 만들기 (50분)

다양한 재료 및 도구 사용법 안내, 새로운 놀이도구 제작 / 10분(휴)

놀이 도구 활용 및 이야기 발전 (30분)

만든 놀이 도구를 활용한 연극놀이

발전된 이야기와 장면을 극으로 표현하면서 생각나누기 마무리 (20분)간식전달 및 참여자(부모님)오늘의 활동내용 공지 및 마무리 (10분)

● 동글놀이(안윤지)

프로그램명 타임캡슐 캔버스

교육대상 초등1~6학년 8명

교육일시 2024. 9. 4.(수) / 9. 11.(수) / 9. 25.(수) 16:00~18:00 (3회)

교육분야 복합(미술 + 사진)

교육강사 안윤지, KUWABARA MUCHINORI(구형승)

● 교육주제

우리 동네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찾아보고, 청사진 기법과 우드락 판화를 활용하여 기록해보며 미래에 기억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을 제작해본다.

● 추진결과

우리동네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찾아보고 기록해보며, 미래에 기억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을 제작해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3회차 운영 / 1회는 모의수업 진행



● 1차시

○ 현재에서 과거로 떠나보기

준비물 | 필기도구, 청사진 재료, 종이, 물티슈 등

-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10분)
- 과거 시간 여행 떠나보기 (30분)
 - 과거에 있던 놀이, 사물 등 소개(카세트 테이프, 병아리 판매, 땅따먹기 등)
 - 네이버 지도를 통해 10년 전의 과거와 현재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 현재 모습 사진 찍기, 흔적 수집하기 (20분)
- 청사진 만들어보기 (40분)
 - 감광액 칠하기, 감광하기
- 정리 및 마무리 (15분)

● 2차시

○ 미래의 동네모습 상상해보기

준비물 | 필기도구, 우드락 판, 도화지, 스펀지, 물감, 앞치마 도화지, 테이블보, 물티슈 등

- 수업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소개 (10분)
-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이 생겨날지 상상해보기 (15분)
- 1차시에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10년 후에 이 장소의 모습 그려보기 (15분)
- 우드락 판화 작업하기 (40분)
- AR어플을 활용하여 움직임 보기 (15분)
- 작품 감상 및 소감
- 정리 및 마무리 (15분)

● 3차시

○ 상상해보기

준비물 | 필기도구, 박스, 도화지, A4용지, 색연필 등

- 수업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소개 (10분)
- 타임캡슐이란 무엇인가 (15분)
- 타임캡슐 만들어보기 (40분)
- 미래에 보내는 편지 쓰기 및 나의 이야기 기록하기 위한 이유 설명 및 활동 (40분)

● 회을(동헌정)

프로그램명 찬란한 우리를 찾아서

교육대상 여자단기심터청소년 5~10명

교육일시 2024. 8. 17.(토) ~ 9. 21.(토) 10:00~12:00

교육분야 미술

교육강사 동헌정, 변새롬, 박혜원

● 교육주제

몸을 중심으로 세 단계의 테마로 전개되는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타인, 지역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 추진결과

인천여자단기심터 청소년 하늘목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 지역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6회 운영



● 1차시

○ 오리엔테이션 / 조명 만들기 (내 마음)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박혜원

준비물 | 연필, 색연필, 싸인펜, 수채도구, 스케치북, 포스트잇

준)

-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10분)
- 자기소개 (25분)
- 이름, 학교, 나이, 오늘 기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두 가지씩 규칙 정하기 (5분)

본)

- 몸풀기 - 컨투어링 드로잉 (20분)
- 간단한 그림기법 배우기 (55분)

마)

- 다음 수업 안내 및 조율하고 정리하기 (5분)

● 2차시

○ 조명 만들기 (내 마음)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준비물 | 조명키트, 연필,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네임펜, 수채도구, 아크릴, 클레이, 스티커, 스케치북, 포스트잇

준)

- 수업 설명 및 근황 토크 (25분)

본)

- 조명 만들기 (80분)
- 작품소개 및 설명 (15분)

마)

- 다음 수업 안내 및 조율하고 정리하기 (5분)

● 3차시

○ 헌옷 리사이클링 1 (내 몸)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준비물 | 헌 옷, 안쓰는 소지품, 연필,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네임펜, 아크릴도구, 클레이, 스티커, 테이프, 가위, 실, 바늘, 스펀지, 스케치북, 포스트잇

준)

- 수업 설명 및 근황 토크 (25분)

본)

- 작품구상 및 제작 (95분)
- 청바지로 만든 캔버스에 가지고 있던 소품과 미술 재료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옷에 그림 그려 리폼하기 중 택1

마)

- 다음 수업 안내 및 조율하고 정리하기 (5분)

● 4차시

○ 헌옷 리사이클링 2 (내 몸)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준비물 | 헌 옷, 안쓰는 소지품, 포토카드 키팅, 연필,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네임펜, 아크릴도구, 클레이, 스티커, 테이프, 가위, 실, 바늘, 스펀지, 스케치북, 포스트잇

준)

- 수업 설명 및 근황 토크 (25분)

본)

- 작품구상 및 제작 (95분)
- 1. 지난 시간 작업 마무리하기
- 2. 키팅이나 티코스터 만들기

마)

- 다음 수업 안내 및 조율하고 정리하기 (5분)

● 5차시

○ 마을 바꾸기 1 (밖)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준비물 | 핸드폰, 노트, 연필

준)

· 수업 설명 및 근황 토크 (25분)

본)

· 수업 장소 반경 200m 내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인상적인 장면 수집하고 메모하기 (95분)

마)

· 다음 수업 안내 및 조율하고 정리하기 (5분)

● 6차시

○ 마을 바꾸기 2 (밖)

교 사 | 동현정, 변새롬

준비물 | 가로세로 2m 크기의 프린트 된 동네 풍경, 핸드폰, 인스턴트 포토 프린터, 시트지, 매직, 박스테이프, 노트, 연필

준)

· 수업 설명 및 근황 토크 (25분)

본)

· 가로세로 2m 크기의 프린트된 동네 풍경 판넬 제작 (10분)

· 주어진 테마 '머물다'에 맞춰 풍경 바꾸기(시트지에 그림 그려 붙이기, 수집한 동네의 모습을 판넬에 붙이며 꾸미기 (85분)

마)

· 정리하기 (5분)

● **뽕뽕클럽(장예선)**

프로그램명 | 모음집: K-doughter들의 뽕뽕

교육대상 | 성인(K장녀 및 차녀) 8명

교육일시 | 2024. 9. 24. ~ 10. 29.(화) 19:00~21:00

교육분야 | 예술(회화,공예,원예)

교육강사 | 장예선, 박지선(공지선), 김보경

● 교육주제

지역에 살아가는 K딸들이 '딸'이라는 가족 내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영감을 일상의 다양한 측면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재발견함

● 추진결과

K 장녀들의 일상에서 벗어나 뽕뽕을 하며 지역을 탐색하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 창작활동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6회 운영



● 1차시

○ OT 자기소개 / K딸들의 왓츠인마이포켓

교자재 | 드로잉 재료, 노트, 볼펜 등

- 북극서점에서 모여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 일정 공유 (30분)
- 인마이포켓 자기소개 :
자신의 주머니나 가방에 있는 소품을 꺼내어 자기소개 하기 (1명당 1분 이내)
- 북극서점에 있는 책 참고해서 앞으로 만들 아트북 이미지 구상해보기 (1시간)

● 2차시

○ 지역탐색 / 산책

교자재 | 핸드폰, 채집한 자연물을 담을 수 있는 가방(에코백)

- 굴포천에서 모여서 산책
- 굴포천을 거닐며 자신의 취향 채집하기(사진촬영 및 자연물 줍기) (30분)
- 북극서점으로 돌아와서 채집물 및 사진들 나누기 (1시간)
- 압화 설명과 취향을 나누고 다음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재료설명

● 3차시

○ 창작활동 (팝업북) / 나를 기록하는 하루

교자재 | 가위, 칼, 양면테이프, 드로잉 재료, 도화지

- 팝업 기초에 대해 설명듣기
- 팝업 페이지에 나의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한 약도 꾸미기
- 이야기 나누기
- 수업 마무리하며 미션 안내(굴포천을 산책하면서 채집했던 사진을 드로잉 해오기)

● 4차시

○ 창작활동 (팝업북) / K장, 차녀 콜라주

교자재 | 가위, 칼, 양면테이프, 드로잉 재료, 도화지

- 지난주 이어서 팝업 작업(사진콜라주 및 드로잉 콜라주)
- 수업 마무리하며 산책미션 안내(본인이 버리고 싶은 감정들을 산책하면서 적어오기)

● 5차시

○ 창작활동 (팝업북) 표지꾸미기 / K장, 차녀 커버업

교자재 | 가위, 칼, 양면테이프, 드로잉 재료, 도화지, 압화, 투명시트지씨앗

- 원예와 드로잉을 활용하여 표지꾸미기
- 압화의 특징과 부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표지 완성하기
- 수업 마무리하며 산책미션 안내
 - 감정씨앗 골라 이야기나누기, K장녀, 차녀로 살아가며 서러웠던 순간, 무거운 책임감, 등등
 - 감정씨앗을 투척할 장소 물색하기, 사진 찍기

● 6차시

○ 창작활동 (스테인드글라스) 소감나누기 / 굴포천 빛의 조각

교자재 | 유리조각, 납, 인두기, 마스크, 장갑, 동테이프, 등

- 굴포천의 빛과 색채에서 영감을 받아 유리조각을 골라 스테인드글라스로 나만의 작은 키링이나 책갈피 만들기
- 마지막 미션 안내
 - 나의 감정씨앗 투척 후 미션 사진공유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날날>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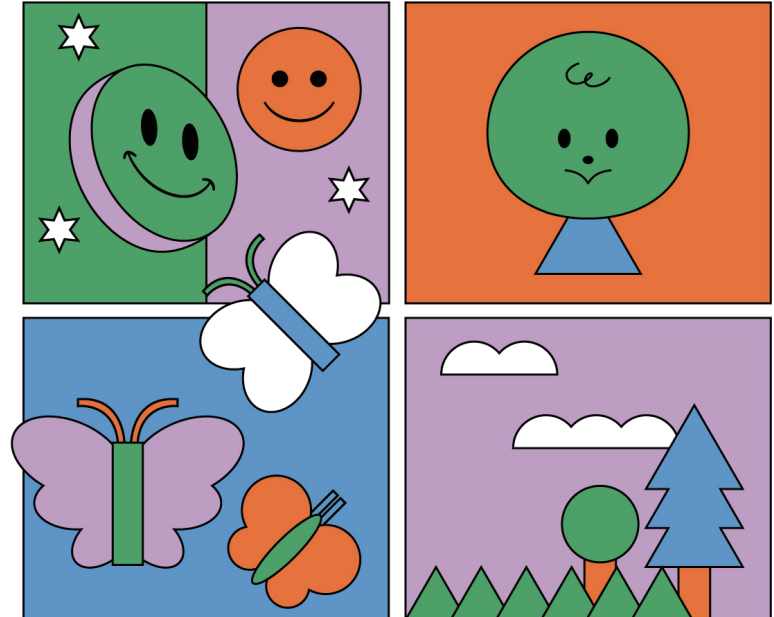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4. 8. ~ 10.
사업대상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그룹
추진방향	부평문화예술교육 살살에서 발굴된 지역자원 및 사회적 이슈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후 시범프로그램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도시부평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참여자 모집



지구별여행자

싱싱(sing sing)하고 생생(生生)한 하하골

교육기간 2024.08.22~09.12.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 4회

교육장소 하하골 주민협의체 사무실

교육대상 하하골마을 60~80대 마을주민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팔랑팔랑씨 집으로 놀러오세요

교육기간 2024.09.30~10.21. 매주 월요일 10:00~11:30 / 택1
1회차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각 회차별 어린이집 연계예정

교육장소 인천나비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26-47)

교육대상 산곡, 청천동 소재 가정어린이집 만2세반 / 4곳

빛파루

수궁가 인형놀이

교육기간 2024.08.06~09.24. 매주 화요일 10:00~13:00 총 6회

교육장소 빛파루공방(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34번길 22, 2층)

교육대상 60~80대 여성 10명

낮잠과 바람

글포천을 누비는 여름

교육기간 2024.08.10~09.28. 매주 토요일 10:00~13:00 총 6회

교육장소 낮잠과 바람 (인천광역시 주부토로150번길 34, 1층)

교육대상 청소년이상 누구나 회차당 6명

참여신청 QR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32-500-2063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인천광역시

본 프로그램은 인천문화재단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권역

싱싱(sing sing)하고 생생(生生)한 하하골 (하하골 주민협의체)

교육 주제 생애 서사 나누기

교육 대상 60~80대 마을주민 10명 / 10명 (모집 / 참여)

교육 일시 8. 22. ~ 9. 12. 매주 목요일 10:00~12:00 (4회차)

장 소 하하골 주민협의체 사무실

교육 분야 즉흥연극

교육 강사 창작집단 지구별여행자

담당자 정혜림

● 프로그램 소개

‘싱싱(sing sing)하고 생생(生生)한 하하골’은 60~80대 하하골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친숙한 노래로 인생을 돌아보고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마을살이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1차시

○ 어린이시절 (즉흥연극 소개)

교육일자 | 8. 22.

주제 또는 키워드 | 그림으로 들려주는 어린이시절 이야기 · 즉흥연극 시연

꼬까신 하나 (최계락 동요)

·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자 인사

· 몸과 마음을 여는 놀이

1) 별명을 정하고 소개하는 놀이

2) 몸으로 말해요 5060 문화

· 어린이시절 이야기 + 즉흥연극 소개

1) 그림으로 어린이시절 이야기 표현하기

2) 창작집단 지구별 여행자의 즉흥연극 시연

● 2차시

○ 청·장년 (즉흥적 요소 경험)

교육일자 | 8. 29.

주제 또는 키워드 | 노래 가사로 들려주는 청춘의 이야기 · 소리, 몸짓, 천 표현

열아홉 순정 (이미자 노래)

· 놀이 : 품앗이 게임 또는 계란 폭파

· 표현 : 박수 도미노 (리듬, 방향, 별명 전달)

동작 도미노 (정지 동작, 반복 동작)

천으로 표현하기 (모듬별로 잠깐 준비 후 발표)

*위 내용 중 선택하여 진행

· 청춘의 이야기

1) 청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 가사 (사전 인쇄)

2) 모듬별로 이야기 공유하고 상황극 만들어 발표 (천, 소리, 몸짓 중 택1)

* 다음주 주제와 사진 준비 안내 (예시 사진)

● 3차시

○ 청·장년 (즉흥적 요소 경험)

교육일자 | 9. 5.

주제 또는 키워드 | 사진으로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 같은 동작 앙상블 표현

모정의 세월 (나훈아 노래)

- 놀이 : 대장 찾기
- 표현 : 스피드 퀴즈 ‘그 시절 그 노래’
손으로 춤추기 > 복사하기
*위 내용 중 선택하여 진행
- 가족 이야기
1) 사진으로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2) 즉흥연극으로 표현하기
이야기를 듣고 ‘복사 앙상블’ 활용하여 즉흥연극으로 표현 또는 ‘복사 앙상블’
활용하여 사전 논의 후 발표
*참여자자의 신체활동과 이해 정도에 따라 추후 결정

● 4차시

○ 노년 (즉흥연극 직접 해보기)

교육일자 | 9. 12.

주제 또는 키워드 | 꼴라주로 들려주는 지금, 노년의 이야기 · ‘모두 주인공’ 표현

백세인생 (이애란 노래)

- 놀이+표현 :
소리 도미노 > 요즘 좋아하는 노래 > 모둠별 밀줄 긋기 > 모둠별로 릴레이 복사 표현
- 미술 작업 (자화상 예시)
가면에 꼴라주 방식으로 자화상 표현하기
- 지금, 노년의 이야기
화자는 가면 자화상을 통해 지금, 노년의 삶을 이야기로 들려주기
> 이를 듣고 ‘모두 주인공’ 기법을 활용하여 즉흥연극으로 표현하기

● 컨설팅 내용 및 후기

본 사업에 참여 및 운영하여 좋았던 점

- A · 자주 오는 동네지만 하하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동네에 올 때면 떠올릴 얼굴들이 있어 반갑다. 하하골의 사람과 이야기가 생생한 그림으로 남았다.
- 마친 후, 마을 주민에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의 윤택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실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보람을 느꼈다.
- B ·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일상에 대해 공부하는 문해의 시간이 되었다.
- 노년기 참여자들의 자기 서사화 과정에 함께 하면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 참여자들이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강사진을 매번 반겨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다.
- 참여자들이 향후 프로그램 지속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해주셔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적합했으며 참여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 재단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지원과 사전 준비 등으로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사전에 운영진의 기획서 및 회의록을 공유받고 본 사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 C · 순간순간 유년, 청년기 등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들을 보는 게 강사로서 의미가 컸다. 안 한다고 하시다가도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특별했다.
- 주로 광역 단위로 모집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 세대의 공통점 등을 구심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했었다. 이번에는 기초 자치구에서도 마을, 동네로 더 깊이 들어가서 생활에서도 밀접한 참여자들과 만나다 보니, 그들 안의 관계나 갈등 등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유연하게 해소되기도 하는 시간들이 매우 특별하고 긍정적으로 보였다.

아쉬운 점 또는 어려운 점

- A · 참여자 연령이 높다보니 집중력이나 신체적 활력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자에 앉아서 상체 위주로 활동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공간이 넓지 않아서 활짝 펼치는 동작은 어려웠다.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은 간식을 나눠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보완하였고 공간적인 부분은 나중에 마을센터가 생긴 후 이 공간에서 몸 가까이 어울렸던 시간이 추억이 되고 사랑방으로서의 느낌을 주었던 공간임을 회상할 수 있음에 아쉬움을 덜었다. 3인 강사가 함께 수업을 기획·운영하는데 출강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 행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 B · 참여자 사전 인터뷰 진행으로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살아온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첫 회부터 강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강사 또한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 좁은 공간이라 활동의 규모나 범위가 제한되고, 참여자들의 이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많아서 아쉬웠다.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공간이어서 본인들은 공간 협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공간 문제에 있어 재고할 만하다.
- C · 세대를 잘 모르니까 노래나 활동을 선택할 때 잘될 거라는 확신까지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잘 진행되기는 했는데 과정에서 그 세대만의 감성과 감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특히 이 지역주민들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왔다 보니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걸까 또는 이들에게 적절한 걸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다.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A · 4회에 걸친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와 의견수렴 <살살> 과정을 통해 마을 특성 파악, 참여자와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사업 운영 시, 사전 준비와 리서치에 대한 시간과 자원 투자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 회차가 짧아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고령임을 생각하면 짧은 회차로 나눠서 상하반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4회차의 만남을 통해 마을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이 필요하고 예술가로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지 서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상반기 만남을 갖고 이를 숙고하여 하반기 만남을 한층 깊어지면서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담은 문화예술, 예술가의 욕망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예술로 만남의 층들이 다채롭고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B ·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해도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교육보다 문화예술교육은 자발성이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이번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잠깐 맛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노년이라면 으레 여생을 잘 보내는 것이 정해진 삶의 목표라고 상정하기 쉽지만, 문화예술교육에서만은 언제나 여전히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예술 다중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산이 허락한다면 참여자들의 욕구가 강하게 발산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C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세대 즉 연령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했는데, 그 연령대 근처 세대의 참여자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점 세대와 약간 명의 인근 세대가 함께 하면 서로 알아가는 점도 있고 새로운 경험도 될 것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어르신) 후기

- A** 내가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왔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잠시동안 여기 남아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B** 4주 동안에 선생님도 늘 즐거웠지만 우리가 참 즐겁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끝나니 섭섭해.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 C** 4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참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 D** 이런 프로그램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통 그냥 뭐 맨날 그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옛날서부터 속내 다 얘기하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전부 다 풀어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E** 집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많이 웃고 다음에도 이 선생님들이 꼭 오시면 좋겠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 F** 저는요 처음에는 잠깐 오다가 한두 번 생각했지만, 참 진짜 특별한 프로그램 같아요. 해보지도 않은 진짜 울고 웃고 하고 박수 치고 뭐 이상한 거 다 해봤어. 너무 기뻐요. 나 집에 가서 많이 해 봤다 얘기하고 집에 가서... 여기서 하하골에서 운동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이름 부르고 그러면 계속 있으면 다 보여. 너무너무 좋아요.
- G** 우리 지금 안 해본 거 많이 했어. 이번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 나 오늘도 웃었어. 정면에 두 분이 얼마나 웃기는지 재밌었어.
- H** 나는 별로 쑥스러운 사람인데 또 하는 거 보니까 재밌고 좋아요. 표현을 내가 잘 못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는 틀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서로의 자기 속마음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지나온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별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진짜 마음 아픈 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쁠 때는 같이 하고 난 그게 너무 좋아.

- I** 맞아요.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꺼내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이러는 거구나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속은 섭섭하네.

하하골 주민협의회 김영옥 대표 후기

● 본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

- 재단 사업담당자들이 준비를 잘해주었고 소통이 잘 된 점, 강사진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었으며 어르신들을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것이 좋았음
- 어르신들이 본인을 오픈할지 걱정됐었는데 4회차 마지막 시간에는 마음을 열고 너무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 있었음(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참여자도 조금이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참여자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신기했음)
-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강사가 참여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것들을 끌어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됐다고 생각)
-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느껴짐

● 아쉬운 점 또는 어려웠던 부분

- 공간이 협소했던 것
- 강사님들이 준비물을 족석에서 요청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준비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점이 있었음
- 어르들의 건강, 마음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체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아쉽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사진이 잘 이끌어주어 좋았음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함. 어르신들이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이 있고, 끝나서 아쉬움과 함께 기대하는 바가 있을텐데 이대로 없어지면 의미가 없을 것
 - 재능 있는 주민을 강사로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음. 전문 강사와 견주어 손색없고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 참여자 뿐 아니라 강사도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담당자 Q

다음에도 이런 형식의 수업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정적인 수업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대표님이 기대하셨던 방향과는 달랐던 것 같은데요. “실험실”이라는 이름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 거거든요. 어떠셨나요?

A

어른들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라도 만들고 가져가면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번에 했던 즉흥극이라는 형태의 연극을 해본 거잖아요. 그게 정말 신선했어요. 그 방식을 통해 삶을 오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고,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만, 어르신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슬픈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생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제나 소재 면에서 즐겁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인 후기

“저 생전 어디 가서 노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수업 때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노래방 가도, 어디 놀러가도 노래를 아예 안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고 가사는 아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게 처음이에요. 제일 많이 웃었고요.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났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연극으로 해주는 게 재미있었고... 동네 어르신들도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계속 같이 와서 어울리시다 보면 더 마음도 좋아지시고 젊어지실 거 같아요. 내 삶을 오픈하는 게 이렇게 힐링이 되는구나...”

의견

강사진에게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참여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계획·준비했던 시간이 밀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4회차의 단기 프로그램이었지만 사전 만남에서 얼굴을 보고 나눴던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낯설과 어색함을 덜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세대는 다르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고 공감하는 강사진의 모습과 태도에 어색했던 참여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해보지 않았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이 정도의 말과 표정,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모습에 그 순간만큼은 본 사업의 기획 의도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며 나눈 소감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감정들과 감사함, 아쉬움을 표하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만남으로 강사진과 프로그램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발현되었으니, 이것을 발화점으로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공간이 협소해서 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는 강사진의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연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본 사업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2권역

수궁가 인형놀이 (빛짜루 공방)

교육 주제 국악감상, 미술, 인형

교육 대상 60~80대 10명 / 10명 (모집 / 참여)

교육 일시 8. 6, 13, 20, 27 / 9. 10, 24 (6회차)

장 소 빛짜루공방

교육 분야 음악+미술+인형공예

교육 강사 심재연, 김새롬

담당자 정혜림

● 프로그램 소개

국악 동요, 판소리를 감상하고 노랫말 가사와 연관된 주제의 동물을 그리고 만드
국악과 미술의 융합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림을 바탕으로 인형을 만들어 냅니다.
미술과 인형을 촬영하여 간단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 1차시 (도입)

○ 나의 이야기

교육일자 | 8. 6.

멋있는 자기 소개 '나는 (00)야'

- '모두 다 꽃이야' '나무 노래' 국악동요 감상
- 자신을 상징하는 그림(꽃이나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캐릭터 그리기)과 함께 자기소개하기

● 2차시 (전개)

○ 그림으로 표현되는 나만의 캐릭터

교육일자 | 8. 13.

수궁가 들으며 바다생물 그림 그리기

- '뱃노래', '어류도감' 국악 음악을 감상하고 들리는 가사말, 등장하는 바다생물 적어보기
- 리듬에 율동도 하며 흥겹게 바다생물 그림 그리기

● 3차시 (전개)

○ 우리의 이야기

교육일자 | 8. 20.

바다속 풍경(배경지) 그리기 (협동화)

- 큰 종이 전지에 공동작품으로 바다속 풍경(배경지)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기
- 이어서 그림 그리기로 화면을 채우면서 우연한 스토리 만들기
- 뱃노래 가사말 바꿔서 글 써보기

● 4차시 (전개)

○ 재미있는 나만의 인형 만들기

교육일자 | 8. 27.

캐릭터 인형 만들기

-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원단과 재료 고르기
- 입체적인 인형모양으로 만들수 있게 입체 전개도 그려 인형 본을 만들어 재단하기
- 기초 바느질법 배우기

● 5차시 (전개)

○ 낚시 게임, 인형 놀이

교육일자 | 9. 10.

인형 마무리 완성, 낚시 게임하기

- 인형 바느질하고 솜 집어넣기
- 다양한 단추와 비즈장식, 눈 등을 달아 완성하기
- 완성된 인형들로 자석 낚시 놀이하기

● 6차시 (마무리)

○ 영상으로 기록하기, sns에 우리 솜씨 자랑

교육일자 | 9. 24.

숏폼 영상 만들기

- 스마트폰에 영상 편집 어플을 깔고 사용법 익히기, 요새 유행하는 ‘ميم’놀이
- 바다 배경지와 만든 바다생물 인형들을 촬영하여 숏폼 영상 만들기, sns에 올리기
- 수업 마무리와 소감 나누기

● 컨설팅 내용 및 후기

본 사업에 참여 및 운영하여 좋았던 점

- 1인 강사가 아닌 2인 이상의 인원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 수업 운영이 원활했음
- 타 장르(분야)의 강사와 함께 복합적인 예술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었음
- 강사가 보유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좋았음(재료와 장비 활용 면에서 편리함)
- 본 사업은 4회차로 짧은 편이었지만 기초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성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해볼 수 있다는 것
- 결과물이 아닌 과정 중심이기에 부담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음→새로운 시도와 실험에 대한 독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예술가·공간 간 교류와 네트워크 : 정보 공유, 상호 도움 및 참고, 협업의 계기

어려운 점

● 참여자 모집

- 문화예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 지역주민에게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
→ 단순히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실용적 공예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예술 창작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설명 및 전달하기 어려움 (관련분야 종사자·경험이 있는 자와 경험이 적은 일반 시민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참여자 모집이 어렵고 실용적 작품을 완성하여 가져가는 원데이클래스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할 것 같음(← 지역적 특성도 있음)

● 기획자이자 강사로서의 부담

-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모집인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음
- 기존에 해오던 교육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위한 준비와 형식이 필요하다고 느낌
- 짧은 기간, 적은 회차에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운영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지역사회 자원 조사·발굴 및 네트워크의 어려움

- 구도심 지역일수록 기존 지역 주체들이 고정된 경향이 있어, 새롭게 알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움 지역 내 새로운 것과 사람을 발굴하고 관계 맺기 어려운 이유

개선점

-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중심이 되는 지역 주체에게 발굴, 소통, 교류, 네트워크, 지속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희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지역 주체와 민간 공간들이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고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램(예산 항목과 집행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계획되기를)
-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물보다 운영 및 참여 주체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독려와 관심이 따른다면 보다 지속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의견

2권역 중 부평2동 ‘빛짜루공방’은 변화가와 거리가 멀고 문화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접근성 역시 낮은 편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지역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날날>]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기획·실행이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주체와 민간 공간을 발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동네’, ‘내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주민보다 타 지역에서 온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필요하지 않은가?’와 ‘그럼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에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분석이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한 일상 공예 작품 만들기를 많이 진행했다”고 말한 심재연강사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천천히 삶에 스며들어 오랜 기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예술교육보다 현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이곳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비록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이번 기회가 닿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 기획·실행 주체인 예술강사에게 새로운 실험의 기회이자 앞으로 더 시도해볼 수 있는 기대를 하게 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주체와 만남으로써 새로운 자각이 되고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3권역

팔랑팔랑씨 집으로 놀러오세요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교육 주제 연극놀이, 생태(숲)놀이

교육 대상 유아4세(만2세) 12명 이내/48명

교육 일시 9. 30. / 10. 7. / 10. 14. / 10. 21. 월요일 10:00~13:00 (총 4회(4기수))

장 소 인천나비공원, 원적산공원

교육 분야 연극+숲+생태

교육 강사 김민주, 정승희, 이계숙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담당자 정혜림

● 프로그램 소개

숲이 무대가 되고 돌·바위·나뭇잎이 소품이 되는 숲연극놀이!!

유아는 숲을 배경으로 몸짓표현하며 연극속 등장인물이 되어봅니다. 나비공원 숲을 오감으로 탐색하고,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작은 숲속동물 역할이 되어 연극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단일

교육일자 | 9. 30.(월) ~ 10. 21.(월) 10:00~13:00

연극/생태(숲)

- 공원공간 및 주변자연물 탐색
 - 인도따라 주요수업공간으로 이동한다.
 - 주변의 나뭇잎과 열매 등 채집해 크기, 색깔을 비교하며 자연물을 탐색한다.
- 운동탐색놀이
 - 작은 동물(거미/개미/메뚜기)의 움직임과 소리를 찾고 탐색 운동놀이를 한다.
 - 메뚜기(폴짝폴짝 움직이기), 거미(거미줄 건너기), 개미(커다란 쿠키 옮기기) 등 활동
- 인형극 보기
 - 샐러드와 마법의 가게 그림책 속 내용을 인형극으로 관람한다.
- 샐러드가게가 열렸어요
 - 각자 역할을 맡아 샐러드가게의 손님이 되어 애벌레를 만나 샐러드를 대접 받는다.
 - 역할 내 교사와 숲속 작은 동물로 상호작용한다.
- 채집한 자연물로 샐러드를 만들어요
 - 샐러드가게의 애벌레를 도와 공원주변에 떨어진 나뭇잎과 열매를 채집하여 나무 접시에 자연물 샐러드를 만든다.
- 애벌레가 번데기로 그리고 나비로 변해요
 - 가게가 열지 않는(쉬는 날)이라는 극적갈등을 해결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인형극으로 본다.
- 꽃 주스가게의 나비를 만나요
 - 나비가 되어 날아간 샐러드가게주인을 찾아 오솔길을 걷는다.
 - 공원의 나비정원에서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한다.
 - 극 속에서 나비역할의 교사를 만나 주스(이오요구르트)를 선물받는다.
-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유아 스스로의 느낀 점을 언어 또는 몸짓으로 표현한다. 서로 듣고 나눈다.

컨설팅 내용 및 후기

본 사업에 참여 및 운영하여 좋았던 점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 지원 없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여자 모집,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등)

유아가 참여하는 숲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예술 교육가로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뜻깊었음.

강사 입장 | 만2세 참여자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인형극, 숲 활동, 연극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었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보완하는 과정이 즐거웠음. 또한 유아와 만나 역할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가로서 행복과 보람을 느꼈으며, 새롭게 배우고 강사들 간 공유한 것들이 많음.

유아 입장 | 생활권 나들이 장소(원적산 공원)에서 연극놀이를 통해 생태·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 권역별 프로그램의 참여대상, 예술 장르가 다르게 진행되어 각 권역별 특성을 공유한 점
- 사업담당자, 프로젝트매니저, 지역 주체(자문 및 어린이집 매칭) 등 사업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배울 점이 있었음.

아쉬운 점 또는 어려운 점

- “기초단위”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정해진 권역 안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신속히 파악 및 실행하는 것, 지역 자원 조사 및 주체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기획·실행 등의 많은 일을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음. 일정이 좀 더 여유 있게 진행되면 좋겠음.
- 실행 장소변경, 참여어린이집 변경으로 인한 소통과 조율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준비과정에서 일을 번복하거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답사, 리허설, 공간 및 동선 설정, 재료 준비 등)
- 야외프로그램 특성상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Plan B 계획을 마련해두어야 함. 그러나 야외공간에서 참여자 반응을 고려하여 극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은 보람 있었음.

- 사전 안내 필요 : 인솔 및 수업을 보조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본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함. (연극놀이 수업에 대한 이해와 강사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수업 진행에 영향을 줌. 수업 도중 지나친 사진 촬영 및 수업 활동 외의 이유로 개입하는 행동 등은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가 되기도 함) 한편 어린이집 교사가 연극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수업 진행을 보조할 경우 활동이 더 풍성해지고 유아들의 극적 몰입에 도움을 주었음.
- 1회 프로그램이므로, 매번 새로운 참여자를 만나 첫 만남의 긴장을 풀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강사로서 쉽지 않음. (섬세하게 만나야 하는 대상이기에 엄청난 집중과 노력이 요구 됨) 또한 한 번의 만남에 참여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위해 제한된 시간 내 많은 활동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 회차 운영하게 된다면 풍성하고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향후 사업 운영 시 개선점 및 건의사항

- 1회성 수업보다 여러 회차에 걸쳐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운영이 좋겠음.
: 유아가 숲에서 경험하는 연극 놀이와 극 체험 자체는 의미 있음. 다만, 낯선 어른들(강사진)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시되는 물체(수업 재료 등)에 대한 탐색 및 놀이 속도에 있어 유아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회차 수업은 소모적일 수 있음.
- 서류의 간소화 (출강확인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지원사업의 명칭과 사업 방향이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램.
- 권역별 참여단체·강사진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예술 장르, 타 단체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알수 있는 과정이 있어 좋았음. → 상호참관 및 대화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배울 점이 있다는 것.
- 사업에 참여한 권역별 강사진 간 과정과 후기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진행되기를 희망함. 실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점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예: “유아와 어른신이 참여자로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권역)과 주민(참여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강사진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는 시스템(사업 구조)이어서 의미가 있었음.

3권역 지역주체 후기

● 본 사업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

- 모의수업 시연 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강사진에 전달했는데, 수정·보완하여 짜임새 있게 구성된 첫 수업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음. (유아들은 시각적인 것이 중요한데 모의수업 때 사용한 소품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음.)
- 전반적으로 수업이 재미있었고 아이들도 집중력 있게 참여하였음.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는데, 주제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다들 좋았다고 평가함.

● 아쉬운 점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 인형극을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진의 목소리가 더 크면 좋겠음.
- 아이들이 공간을 이동하며 참여하는 활동(오갈 때)은 좀 더 재미있게 또는 동적으로 구성하면 좋을듯.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걸로 보여서 활동을 줄이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함.

- 아이들, 가정, 어린이집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책 또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면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및 운영 방향 관련 의견

-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다면 <부평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차츰 확대해나가기를 권함.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 국·공립 등으로 나뉘는데, 연합회가 다 따로 있음. 올해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기에 참여 가능한 어린이집을 개별 섭외했지만 사업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면 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면 될 것.)
- 어린이집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연극이나 인형극이라도 단순히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됨. 따라서 이번과 같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됨.

참여 어린이집 교사 후기

●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 인형극 관람 후 아이들이 인형극에 나오는 개미, 거미, 메뚜기 등이 되어 원적산에서 자연물(나뭇잎)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스토리를 진행하여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를 관계자분들께서 돌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자연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구성도 좋았습니다.
-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준비가 좋아서 4세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 숲에서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하며 놀이할 수 있어 좋았다. 인형 친구들이 등장하는 연극에 흥미로움을 보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들이 좋았다. 다만 실외에서 진행되는 연극이라 집중하기에는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소 작아서 음향을 준비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활동 재료(자연물)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놀이할 재료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기다림이 길지 않고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무당벌레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 때 아이들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재료들을 미리 소분하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다.
- 진행하는 분들끼리 소통이 좀 더 원활했다면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 두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사진 찍는 게 힘들었어요.
- 중간쯤 약간은 지루했던 부분이 있어 보였음.

의견

3권역은 과정 중 변수가 많아 어려움이 컸던 지역이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로 만나기 쉽지 않은 만2세(4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야외공간을 교육 장소로 정했기 때문이다. 참여어린이집이 변경되기도 했고, 나비공원 측 사정으로 실행장소가 2회차부터 원적산으로 바뀌었다.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긴밀한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계획대로 진행하고 잘 마무리한 점은 본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당초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가 어린이집 유아로 대상을 변경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이 달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층위와 세대의 사람들이 새롭게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다행히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지역구성원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지역 주체의 도움이 본 프로그램의 준비와 원활한 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매번 새로운 유아들을 만나 빈틈없는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강사진은 운영시간 내내 처음 만난 아이들과 섬세하게 소통하고 이끌며 90분을 꽉 채웠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대상에 대한 고민과 연구, 철저한 준비 덕분일 것이다. 몸 활동, 인형극 보기, 숲속 생명을 탐색하고 관찰하기, 극 내용과 실제 환경을 연결하여 체험하기 등 활동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1회차 프로그램이기에 제한된 시간 안에 완결된 구조의 활동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기 위한 구성이었다고 생각된다. 강사진의 의견대로 추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회차를 늘려서 여유를 갖고 더 깊이 참여자들을 만나면 될 것이다. 지역 주체 사전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고 운동회 같은 체육활동이나 단순한 숲 체험활동은 해봤지만 숲에서 연극 관련 활동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경험이 생애 첫 예술체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실험실”이라는 명칭처럼 실험이기에 가능했던 시도들이 3권역에서 진행되었고, 기반 마련부터 활성화까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이 시작을 계기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

4권역

굴포천을 누비는 여름 (낮잠과 바람)

- 교육 주제** 굴포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만들기 / 그리기
- 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이상 차시별 6명 / 36명
- 교육 일시** 8. 10, 17, 24 / 9. 7, 21, 28 10:00~13:00 (6회)
- 장 소** 낮잠과 바람
- 교육 분야** 미술, 공예
- 교육 강사** 김진주, 정소은, 조다애
- 담당자** 정혜림

● 프로그램 소개

굴포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모빌과 자수 수첩을 제작해보고, 굴포천 주변을 산책하며 그동안 지나쳤던 자연물이나 공간을 발견하고 나만의 지도를 그려 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1, 2회차

○ 나의 여름 기록 모빌

교육일자 | 8. 10. / 8. 17.

주제 또는 키워드 | 굴포천과 동해바다 자연에서 얻은 자연물로 나의 여름 기록하기

나의 여름 기록 모빌

- 굴포천을 함께 산책하며 모빌에 여름 자연물 수집
- 수업 내용 소개 및 작품 제작
- 정리 및 완성된 작업물 사진담기

● 3, 4회차

○ 굴포천 야생화 손자수 수첩 만들기

교육일자 | 8. 24. / 9. 7.

주제 또는 키워드 | 굴포천의 자연물을 들여다보고 이를 손자수 소품으로 활용하기

굴포천 야생화 손자수 수첩 만들기(꽃마리/개망초)

- 수업 내용 및 과정 소개
- 원단에 개망초 수놓기, 수놓은 원단으로 수첩 만들기
- 이야기 나누기

● 5, 6회차

○ 두벅두벅 굴포천 지도

교육일자 | 9. 21. / 9. 28.

주제 또는 키워드 | 산책하며 자연물, 공간 등을 발견하고 나만의 지도를 제작 후 발표

두벅두벅 굴포천 지도

- 프로그램 소개/강사 소개
- 자기소개/좋아하는 장소, 즐겨 찾는 산책로 소개
- 산책로 식물 탐방 팀과 골목 공간 탐방 팀으로 나누기
- 각각의 팀이 강사 1인과 산책 진행
- 지도 그리고 공유, 이야기 나누기

컨설팅 내용 및 후기

본 사업에 참여 및 운영하여 좋았던 점

-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타 분야의 강사와 협력할 수 있었던 점 (‘:’ 어려운 점이기도 했음)
-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예술(교육)가의 발굴 및 성장의 기회
- 지역주민이기도 한 참여자들은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공간 운영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을 알게 된 계기
- 지역에 살거나 머무는 이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동네와 골포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더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동네 사람이라는 유대감 형성)

어려운 점

- 강사이기 전에 기관(재단)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기획자의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중간에서 협력 운영을 위한 조율을 해야 하는 일이 어려웠음
- 분야가 다른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역할을 분담(포지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 구성이나 교육 시간 분배 등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 (‘자수’ 클래스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임에도 시간을 짧게 잡아 강사가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
- 단기간 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해서 프로그램 주제나 내용 구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지도 그리기’ 클래스의 경우 결과물을 완성하는 활동이 아니어서인지 예비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이 어려웠던 듯, 따라서 모집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었음)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및 협력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점

- 지자체나 기관과 지역 서점이 협력하는 연계사업의 경우, 서점은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은 몰랐던 곳을 알게 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서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
-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간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지역주체가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공간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활동과 노력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도 필요함. 또한 이러한 의견을 솔직하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함.

의견

4권역 골포천 인근에 위치한 ‘낮잠과 바람’은 문을 연 지 일 년 남짓 되었음에도 이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공간이 최근 동향이자 이슈인 ‘환경·생태’를 주제로 골포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자 역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본 사업과 연계·협력 운영하게 되었다. 3가지 형식의 총 6회차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과반수의 참여자들은 공간에 처음 와봤거나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이었다고 한다. 본인이 1회차는 참여자로, 5회차는 참관으로 수업과 참여자들을 직접 보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해당 공간과 운영자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지역과 지역주체를 기반으로 한 본 사업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네트워크와 운영이 중요하다. 운영자에게는 문화공간이기 이전에 자영업업을 하는 장소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 일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대관비 등의 예산 책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단순히 강사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섭외 및 협력 운영을 위한 소통·조율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므로, 기획·운영비 등의 예산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 지역의 토양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언한다.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 <모으다 그리고 잇다>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4. 11. ~ 12.
- 운영대상** 전문가,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주체, 일반 시민 등
- 운영내용**
- 기초문화재단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과제제시 및 부평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가능성 모색
 - 부평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지속, 확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구성원

좌장

<모으다 그리고 잇다>

김상원 |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교육원장

발제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결과

전승용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종합토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임학순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2차 인천문화예술교육 계획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망

최영화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인천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언 및 정책 필요성

손동혁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문화재단의 협력방안

정진주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부평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정영진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모으다
그리고
잇다

부평문화예술교육
포럼

12.04. Wed 15:00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BUPYEO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UM

기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현실과 가능성 모색

좌장
김상원 | 인하대학교 교수, 문화예술교육원장

발제
부평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결과
전승용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종합토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임학순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2차 인천문화예술교육 계획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망
최영화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인천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언 및 정책 필요성
손동혁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문화재단의 협력방안
정진주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부평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정영진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부평구문화재단

● 종합토론 주요 의견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브랜딩 전략, 공간 거점 모델, 협력 플랫폼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함. 먼저, 브랜딩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함. 둘째, 특정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는 정책 의지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셋째, 지역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적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기반을 확장해야 함.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 브랜딩과 국제 예술놀이 워크숍 등을 통해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를 보여줌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과제 : 인천 지역은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세대 간 소통 부족과 청년층 유출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음. 문화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과 노후화로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대면 교육에서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단기 사업 중심 운영과 정책 간 협력 부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역 자원과 수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또한,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여 통합 플랫폼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주민 참여형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지역 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원 공유와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함.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정 다각화를 추진해야 함. 마지막으로,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책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손동혁((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제2차 계획(2023~2027)은 중앙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생활밀착형 거점 지정과 지역 자율 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함. 인천문화재단과 부평구문화재단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 공론화와

현장 협력이 부족함.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는 문화예술교육을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만 집중되어 사회통합과 세계시민 교육으로 확장되지 못함.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재조정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6년 2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정진주(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 함.

광역-기초의 협력과 일상적 소통 창구 마련 :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센터와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간의 정기적인 회의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함.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추진 :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함.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부서 이동으로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워, 중기적인 업무 보장을 통해 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 함.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정영진(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부평 문화예술교육 운영방안 : 2022년 예술교육팀을 신설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함. 시민 대상 특성화 교육과 학교, 취약계층 시설, 지역 문화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천문화재단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거점 교육공간 발굴을 추진함.

부평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 부평구는 2021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평형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창출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지역 주체 간 협의체 및 교육 주체 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시민 참여 및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와 광역문화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초문화재단의 매개자 양성과 지역자원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광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함.

부평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그래-잇>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4. 11. ~ 12.
- 운영대상**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 활동가, 문화예술 교육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등
- 운영내용**
- 부평구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조사 과정과 결과 공유
향후 운영방향 논의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들의 교류의 장 마련

구성원

기획자, 예술교육가

한송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교육팀

정혜림

고혜령

김예인

조윤정

창작집단 지구별 여행자

사미숙

이현수

정수경

전보형

극단사다리교육연극연구소

김민주

이계숙

정승희

빛짜루공방

심재연

슬로

정소은

낮잠과 바람

조다애

마음집

김진주





교육커리큘럼

1-1. 수호대원 되기 훈련

놀이1) 맹꽁이 알 전달 (탱탱볼 이름 인사)

놀이2) 맹꽁이 맹꽁 (고양이 찰칵 변형)

1-2. 연극속으로

1) 연극속으로 주문 > 로비로 이동

2) 모둠 나눔 > 초대장 받아 작성 > 아크릴 상자에 초대장 담기 > 극장 입장

3) 꿀꽁이 이야기

1-3. 모둠별로 출발

모둠별로 이동하면서 지도 미션

[1구역] 눈 감고 소리듣기

[2구역] 나를 닮은 자연물 찾기 > 모둠 내 공유

[3구역] 맹꽁이 보호구역에서 모둠 사진찍기 (사진찍기 전, 물에 얼굴 비춰보기)

[4구역] 거점 구역에서 다같이 미션

- 맹꽁이를 찾아라 (맹꽁이의 생김새 알기)
- 짝꿍 나무 찾기 (팔로 나무 둘레재기)
- 자연의 친구 흉내내기 (무궁화꽃 변형 놀이)
- 맹꽁이 알을 안전한 곳으로! (협동놀이)

· 간식 먹기 : '다같이 미션' 장소 근처에서

· 극장으로 돌아오기 : 두런두런, 무사히

극장 입장 (종료 10분 전, 부모님도 극장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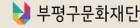
브리핑 > 영상 관람 > '연극밖으로' 주문 > 인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그널B>

사업개요

운영기간	1기 2024. 11. 6. ~ 11. 27. 2기 2024. 11. 9. ~ 11. 30.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자치활동실
예술교육가	프로젝트 다다 (정지연, 라미선, 박지원, 한송희)
교육내용	2024년 부키(Bupyeong Kids)에게 도착한 같은 공간 다른 모습 속 B의 메시지 연극으로 놀고 3D펜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타임슬립 예술교육프로그램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 부평

시그널B

2024년 부키 (Bupyeong kids)에게 도착한
같은 공간 다른 모습 속 B의 메시지



연극·영상·3D펜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부평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는 타임슬립 예술교육프로그램

과거에서 들려온 부평의 이야기

교육대상 초등 1~4학년, 반 별 12명

신청일시 2024.10.21.(월) 오전 10시~

신청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예술강사 프로젝트 다다
(정지연/라미선/박지원/한송희)

신청문의 예술교육팀 032-500-2063

참가비용 무료

시그널B 수요반
2024.11.6~11.27.(수)
오후 4시 30분~7시(4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시그널B 토요반
2024.11.9~11.30.(토)
오전 10시~12시 30분(4회)

장소 부평구청소년꿈나래터 3층
자치활동실(부평구 산청로 129)

▶ 수요반·토요반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하며 일정과 장소만 다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천문화재단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인천광역시

교육커리큘럼

● 1회차 시그널B_누군가의 목소리

- | | |
|------------------------|-----------------------|
| 1. 놀이 | 3. 시그널 탐정사무소 - 탐정 훈련 |
| 1-1. 누가누가 왔나 | 3-1. 탐정 테스트 |
| 1-2. 너의 이름은 | 4. B의 시그널 & 탐정 명찰 만들기 |
| 2. 내가 알고 있는 부평, 몰랐던 부평 | 5. 마무리 |

시그널을 보낸 B, 당신은 누구시죠?

- 부평의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접하고, 시그널B(과거 부평에 살던 누군가)를 음성으로 만난다.
- 연극 활동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 가기 위한 역할을 정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D펜으로 명찰을 만든다.

● 2회차 OO를 찾아줘!!

- | | |
|-------------------|----------------------------|
| 1. 놀이 | 2-1. 1944 수연이와의 만남 |
| 1-1. 사람과 집 | 2-2. 다시 1944 - 조병창 |
| 1-2. 즉흥 장면 만들기 | 2-3. 수연이 오빠는 어떻게 되었을까? |
| 2. 과거로 타임슬립_1944년 | 3. 마무리 <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B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 조병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
- 과거 어린이들의 놀이를 함께 배우고 놀 수 있다.

● 3회차 B의 이야기

- | | |
|------------------------|-----------------|
| 1. 놀이 | 2-1.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 |
| 1-1. 무엇을 할까요? - 영상 힌트들 | 2-2. 레디 카메라 액션 |
| 2. 부평의 과거와 현재 | 3. 마무리 |

B의 기억 속 부평은 어떤 모습일까?

- 상자 속 사진을 보고, 오늘의 미션을 떠올려 본다.
- 과거와 현재의 캠프마켓 모습과 부평의 시대별 이야기를 담은 소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 4회차 2024 부평을 기억하다.

- | | |
|---------------------------|---------------------|
| 1. 놀이 | 4. 시그널 B_우리가 함께한 시간 |
| 2. 시그널 탐정단을 찾아온 손님 | 5. 마무리 |
| 3. 부평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줘! | |
| 3-1. 나무상자에 담아 전달하자!! | |

지금 부평 우리들의 이야기

- 시그널 탐정단을 찾아온 예진이로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 3D펜을 사용하여 부평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입체로 만든다.
- 시그널B와 함께한 시간을 영상으로 보며 마무리한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부평구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실시 **408 명 참여**
- 부평 4권역별 지역현황, 마을자원조사, 지역주체 인터뷰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의견 수렴
16 회, 총 16 명 참여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와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운영현황, 교육현장 반영상황 파악과 개선방향 모색
-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와 함께 협력방안 논의
-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의 역할에 대한 의견 청취, 실질적 개선방안 도출
3 회, 27 명 참여
- 부평만의 특성이 담겨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지원 신청 전년대비 30.7% 증가
26 건 → 34 건
- 선정단체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진행
- 부평전역에서 시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 확대
19 회, 34 명 참여
- 권역별 중점 운영방향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1권역
하하골마을주민협의체와 함께 어르신 대상 노래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 2권역
빛짜루공방(부평별곳)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악과 미술을 결합한 공예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 3권역
나비공원에서 나비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한 유아대상 생태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 4권역
낮잠과바람(독립서점)에서 굴포천을 활용한 공예, 지도제작 등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20 회, 104 명 참여
-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공간거점 모델,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자원과 수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과 교육 콘텐츠 개발
-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반 마련
1 회, 65 명 참여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참여한 예술교육가와 함께 권역별 중점 방향 도출 결과와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 결과 공유, 네트워킹
1 회, 16 명 참여
- 우리동네 굴포천에 살고 있는 맹꽁이를 소재로 생명에 대한 연민과 경이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연극, 놀이가 결합된 어린이 환경산책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회, 18 명 참여
- 조병창, 캠프마켓, 신촌, 부평수출산업단지까지 초등 1~4학년에게 생소할 부평의 장소들,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어둡고 아픈 역사들을 상상의 장치로 설정한 시그널을 통해 만나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8 회, 16 명 참여





타임캡슐



캔버스



항굴마을



놀이 탐험대





찬란한 우리를



찾아서



모음집:
K-doughter들의



만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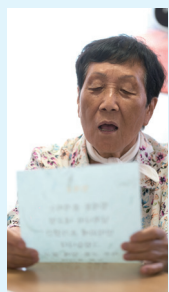
싱싱(sing sing)하고



하하골



생생(生生)한



수궁가



인형놀이





팔랑팔랑씨
집으로



놀러오세요



굴포천을



누비는 여름





모으다



그리고



잇다



그레-잇





발 행 인 이찬영

발 행 일 2024. 12

운 영  부평구문화재단

주 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 최  인천평역시

문 의 032-500-2063

총 괄 정영진

기획총괄 우사라

기획편집 정혜림

디 자 인 아츠비

 부평구문화재단

본 결과자료집은 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